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 병 화

2018년 2월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

지도교수 양진건

박병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박병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2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2.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	2
가. 북송과거제도연구	2
나.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연구현황	5
다. 연구내용	7
라. 연구의 중점, 난점과 창신점	7
마. 북송연표	8
바. 용어정리	9
II. 소동파의 교육사상	13
1. 교육목적	13
가. 벼슬을 하거나 말거나 에서의 독립적인 인격	13
나. 독특한 인재평가관념-"대절"을 중시, "과정"을 반대	14
2. 교학내용	15
가. 사회교화를 중시	15
나. 인의예약교육	15
다. 문학예술교육	17
3. 교학관념	18
가. 교학중의 도와 학의 관계	18
나. 교학원칙	19
다. 소동파의 덕육관념	22
III.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	24
1.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인식	24
가. 과거의 작용	24
나. 과거의 득실	26
다. 소동파의 과거제도에 대한 태도변화	28

2. 소동파의 건의의 가치	29
가. 역사발전의 시각에서의 과거개혁	30
나. 덕행교화와 시험취재의 본질적구별	31
3. 소동파의 과거개혁운동	31
가. 소동파가 참여한 과거활동	32
나. 소동파의 개혁건의와 개혁행위	34
IV. 소동파가 북송과거시험장의 문풍에 대한 영향	44
1. 과거 급제한 후에 소동파의 영향	44
2. 소동파의 제자와 문인들에 대한 교육활동	46
3. 주맹문단에서 소동파의 작용	51
V. 결론 및 전망	54
1. 연구결론	54
2. 연구의 부족점 및 전망	56
참고문헌	57

【국문초록】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연구

박 병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송사·소동파전>에서는 이렇게 소동파를 총결하고 평가하였다. "父子兄弟直至京師，一日而聲名赫然，動于四方。既而登上第，擢詞科，入掌書命，出典方州。(부자형제로부터 스승에 이르기까지, 과거로 명성을 떨치고 진사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천하의 과거를 심사하다.)" 소동파의 일생 및 그의 성과는 과거시험과 인연을 맺었다.

본 논문은 북송과거정책에 대한 정리와 고증을 기반으로 소동파가 해시, 성시, 전시 및 제과시험에 참가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동파가 받은 교육은 과거시험의 영향을 받았고 과거제도의 개혁은 소동파의 시험 과정이 더욱더 순탄하고 순리로웠던 주요 원인이며 소동파의 벼슬길에 영향을 주어 시험장문화와 문풍에 감정과 예의가 겸비하게 하여 나라에 유익하게 하였다; 북송과거시험의 특성은 소동파로 하여금 명예와 이익을 모두 얻도록 하였다.

벼슬길에 오른 소동파는 과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북송과거개혁에 대책들을 건의하였다. 소동파는 북송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뚜렷하게 인식하고 과거시

협심사, 시험규칙과 내용의 개혁 및 북송중후기의 용관의 폐단을 해결할 것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여 북송과거제도에 영향을 끼쳤다. 소동파의 독특한 견해, 이성적 태도와 비판적 정신은 그 가치를 발휘하여 북송과거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주었다.

소동파는 북송중후기의 과거시험의 문풍을 인도하였다. 소동파의 성공한 시험경력, 문단맹주-구양수의 추앙과 성찬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동파의 시문을 패러디하고 풍격을 전승하며 널리 전파하도록 하였다. 소동파는 자각적으로 북송시문개혁의 기발을 추켜들어 있는 힘껏 후생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었으며 제자들을 지도하고 대량의 모범 문장을 창작하여 자신의 문학주장을 실천하고 술선수범하였다. 해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소동파는 북송중후기의 문풍을 인도하였다.

주제어: 소동파, 북송과거제도, 관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송조는 건국 이래 인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관료기구와 제도 개혁들의 모순 등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왕안석과 사마광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정치가, 철학자, 사상가들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어떻게 왕조를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게 되었다. 저마다 부국강병의 개혁주장을 내세우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것은 북송을 이성적 시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북송의 이러한 시대상황은 소동파로 하여금 시대, 사회, 인생에 대한 철리적 사고를 가능케 하였다. 더욱이 파란만장하였던 정치생애와 갈라놓을 수 없는 풍부한 인생경험은 소동파로 하여금 생활과 자연, 사물, 시간, 비애 그리고 불·도가적인 사유로부터 비롯된 철리사상을 폭넓게 발전시켜 많은 작품에 깊은 철리(哲理)성을 가미하게 하였고 북송의 과거개혁에 관한 새롭고 독특한 관점과 주장들을 펼치게 된다.

소동파는 문학예술 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하였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이영란, 2011) 그는 북송 때의 격렬한 변법운동 및 신구(新舊)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차례 좌천당하고,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대부분의 세월을 지방관으로 떠도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인생역경의 경험들은 고스란히 소동파시의 소재가 되었다

국내외의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당파간의 싸움과 과거제도, 북송과거제도의 개혁, 과거제도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연관된다. 북송과거제도를 연구할 때 간혹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인식과 건의를 연관하게 되는데 목전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를 연구한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인 간행물이나 학위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으로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동파를 더 깊이 요해하고 북송과거제도를 요해하며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더욱 또렷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현대인들에게 역경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소동파처럼 소탈하게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중요한 계발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테스트와 승학시험에 시달리는 현대의 사자들, 특히는 수능시험과 까우카우 때문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소동과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견해와 개혁을 위한 노력에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제시를 받을 수 있다.

2. 소동과, 북송과거제도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

가. 북송과거제도연구현황

송대의 과거제도는 당조시기의 법칙을 기반으로 약간의 변화를 추가하였고 거의 완벽함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송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한 성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비교적 높다. 송대과거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저는 기본상 북송과거제도를 위주로 한 것이다.

국내외의 북송과거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전문 저작, 학위논문, 간행물들은 주로 과거제도, 북송 당과싸움과 과거제도, 북송과거제도의 개혁, 과거제도와 문학, 문화, 사회와의 관계 등이 있다.

1) 북송과거제도의 연구기록

하충예(何忠禮)가 1992년에 출판한 <송사·선거지보정(宋史·選舉志補正)>은 <송사·선거지(宋史·選舉志)>에 대하여 보충 수정하였는데 <송지(宋志)>에 실린 내용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교정하고 뜻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중점은 <송사·선거지(宋史·選舉志)>에서 제기하지 않은 조령(詔令), 조목(條制), 관료들의 상주와 선거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위주로 연월의 선후순서를 잡고 내용을 수록한 후 보충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표를 작성하여 매년과거의 합격자 선발과 추천 등 규정들을 수록하였다. 공연명(龔延明), 조혜(祖慧)가 편집한 <송등과기고(宋登科記考)>(2009년)는 송조시기의 모든 합격자를 과목과 년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도(李焘)가 쓴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및 서송(徐松)이 편집한 <송회요집고·선거(宋會要輯稿·選舉)>는 북송과거제도를

연구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장희청(張希淸)의 <송대과거취사와 불필요한 관리문제를 논하다(論宋代科舉取士之多與冗官問題)>(1987), <북송공거합격자인수고찰(北宋貢舉登科人數考)>(1994), <송대전시제도논술(宋代殿試制度述論)>(1992), 하충예의 <북송과거제의 특징 및 역사적작용을 논하다(試論北宋科舉制的特點及其歷史作用)>(1984), <과거제도와 송학의 발흥을 논하다(論科舉制度與宋學的勃興)>(1991) 등은 송대과거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명한 저서들이다. 공연명의 <중국고대직관과거연구(中國古代職官科舉研究)>(2006), 축상서(祝尙書)의 <송대과촉문학통론(宋代巴蜀文學通論)>(2005) 등 전문저서에는 모두 작가들의 송대과거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1993년에 출간한 장희청(張希淸)의 <중국과거시험제도(中國科舉考試制度)>에는 중국과거제도를 창립, 공거시험과목, 참가자인 자격, 시험방법, 시험내용, 급제와 수관(授官), 과거시험제도의 폐지 및 그 역사적 지위와 작용에 대하여 여덟 장으로 나뉘어 상세한 소개를 하였고 또한 당, 송, 원, 명, 청 다섯 개 조대의 시험합격도표를 부록하였다. 1998년에 출간한 궁운유(宮雲維)의 <송인필기과거역사자료연구(宋人筆記科舉史料研究)>에서는 송인필기중의 과거역사자료와 송대과거제도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토론하였다.

김중추(金中樞)는 선후로 <북송과거제도연구(北宋科舉制度研究)>(상, 하), <북송과거제도연구의속편(北宋科舉制度研究續)>(상, 하)와 <북송과거제도연구재속편(北宋科舉制度研究再續)>(상, 중, 하) 7편의 작품을 발표하여 공거, 성시, 전시 삼급시험의 방법, 시험내용, 격식, 시험과목변화, 제도변혁, 녹취인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20세기의 중국과거제도사연구(二十世紀的中國科舉制度史研究)>(하충예, 2000)에서는 과거제도기원문제의 토론, 수당과거제도연구, 송료김원과거제도연구, 명청과거제도연구, 과거제도에 대한 역사적평가 등 다섯 부분으로 20세기의 중국과거제도역사를 서술하였다. 서홍(徐紅)의 <북송초기진사연구(北宋初期進士研究)>(2009)에서는 북송태평흥국5년방(五年榜)진사를 둘러싸고 송대 초기 진사와 사회환경변화의 관계를 연구하고 북송초기진사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섭송기(聶崇岐)의 <송대제거고략(宋代制舉考略)>, 림서한(林瑞翰)의 <송대제과고(宋代制科考)>는 전문적으로 송대과거제도를 연구한 논저이다. 특히 섭송기의 문장은 송대제과의 답습과 변혁 및 과목, 시험방법, 과목분류 및 대우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와 논술을 하였다.

2) 북송과거제도의 개혁

<북송과거제도개혁의 육차 논쟁 및 유관문제의 고찰(北宋科舉制度改革六次論爭及相關問題之考察)>(주경의, 2008)에서는 북송과거개혁과정에서 여섯 차례 논쟁의 고찰을 통과하여 북송과거개혁의 기본면모를 드러냈다. 엽진진(叶晋晋)의 <북송 당파싸움이 과거개혁에 대한 영향연구(北宋黨爭對科舉改革的影響研究)>(2010)에서는 주로 북송 당파싸움이 과거제도개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3) 북송과거와 문학, 사회, 문화의 상호관계

<과거제도와 송대문화(科舉制度與宋代文化)>(하충예, 1990)는 과거제도와 송대 문화의 보급, 학교교육의 발달 이 두 분야로 탐구토론을 펼쳤다. 림암(林岩)의 <북송과거와 문학의 연구(北宋科舉與文學之研究)>(2002)에서는 북송과거연구를 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은 문학의 연관성을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목적은 북송문학 발전의 시대배경을 드러내기 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와 문학 간의 관련을 찾기 위한데 있다.

손서평(孫書平)은 <송대시론 및 그 문학의 영향(宋代詩論及其文學之影響)>(2003)에서 계통적으로 송대시론에 대하여 연구하여 송대문학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였다. 축상서(祝尚書)의 <송대과거와 문학고론(宋代科舉與文學考論)>(2006)은 전면적이면서도 새롭게 송대과거제도의 변화와 문학, 이학, 문화풍습, 사인생활, 심지어 시험 추천받은자가 책을 씌에 있어서의 도장, 발행 등을 연결시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탐구토론을 하였다. 축상서는 <송대과거와 문학(宋代科舉與文學)>(2008)에서 과거제도, 과거문체, 과거와 각종 사상적 문화와의 연관과 작용, 과거와 문학의 관계를 19장으로 나누어 송대의 과거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나.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연구현황

1)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에 대한 영향

양승관(楊勝寬)의 <송대과거제도와 소동파의 청년시대(宋代科舉制度與蘇軾青年時代)>(1993)에서는 소동파가 과거에서의 성공의 원인 및 청년소동파가 과거제도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 조유평(趙維平)의 <소동파와 북송선거(蘇軾與北宋選舉)>(2003)에서는 소동파가 과거제도로 인하여 벼슬길에 진입하고 추천받아 신종 황제의 중용을 받고, 공거제로 벼슬길의 최고봉에 도달한 것으로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를 간단히 분석하여 소동파의 생애와 북송선거에 관한 연구에 유익한 공헌을 하였다. 이희운(李希運)의 <소씨 삼부자와 북송진사과개혁(三蘇與北宋進士科改革)>(1999)에서는 소씨 삼부자가 북송과거개혁시기에 참여한 과거개혁활동을 논술하였다.

주운용(周雲容)의 <소동파의 두 차례의 제과시험을 분석하다(解讀蘇軾的兩次制科考試)>(2011)는 소동파가 1061년과 1065년에 제과시험에 참여한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제과시험이 소동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동파가 1065년에 참가한 것은 사실상 제과시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동파의 과거로 명성을 얻은 길(蘇軾的科舉成名之路)>(2012)에서는 당시의 사회배경과 과거개혁방안을 결부하여 소동파가 과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소동파가 책(策)문제에 대한 뛰어난 재주이고 둘째는 그의 문풍이 소박하고 구양수와 의기투합하여 "대학체(太學體)"의 결책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과거시험에서 소동파가 받은 가족적 영향과 소동파가 받은 교육이 그가 명성을 떨치는데 대한 영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2)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혁건의

기결(冀潔)의 <소동파 학교공거장을 논하다는 희녕4년에 상주한 것이 아니다(蘇軾“議學校貢舉狀”並非熙寧四年奏上)>(1982)에서는 먼저 과거의 학술계에서 제기한 <학교공거제를 논하다>는 희녕4년에 상주한 것이라는 관점들을 서술한 다음 <송

회요편고(宋會要輯稿)>, <문헌통고(文獻通考)>, <송조대신상주(宋朝諸臣奏議)> 등 고적자료중의 자료를 인용하여 소동파의 <학교공거제를 논하다>는 희녕4년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희녕2년에 상주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산(李山)의 <소동파희녕과제변혁시의 의논(蘇軾熙寧科制變革時的議論)>(2004)에서는 북송희녕변법기간에 학교와 과거제개혁에 관하여 소동파는 왕안석,사마광 등 인물들과 완판 다른 주장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의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구맹(勾孟)의 <소동파의 과거관논평(蘇軾의科舉觀述評)> (2008)은 소동파가 과거공능,과거와 학교의 관계,과거시험의 표준,조직관리 등 분야의 독특한 견해를 논술하였다. 과거선사의 결함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이 과거인재선발에 대한 제약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퇴정정(雷婷婷),장암(張岩)의 <왕안석과 소동파가 과거시부취사에 대한 쟁의 및 원인탐구(王安石和蘇軾關於科舉詩賦取土的爭議及原因探究)>(2014)에서는 왕안석과 소동파가 시부취사에 대한 관점을 논술하고 이러한 관점이 생기게 된 심층원인을 분석하였다.

3) 소동파,북송과거제도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논평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이다. 제도의 변혁, 등과사자(登科士子)의 정황이든 과거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취사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전문적인 저작과 학위논문이 있기에 조금만 정리하노라면 소동파가 과거시험에 참가한 시기의 제도배경을 또렷하게 보아낼 수 있다. 북송과거제도의 변화와 개혁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깊고 상세하며 유관저작과 학위논문은 믿음직하고 상세한 참고자료로 될 수 있다. 근 20년래 학자들의 연구는 제도자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북송과거제도와 문학, 사회,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더욱더 중시하였다.

소동파의 정치학, 철학(경학),미학(문예사상, 미학사상),문학(시, 사, 문, 부), 서법, 화학(画学),사학(史学),종교학(석释, 도가사상), 의학, 군사학(책론, 상주)에 관한 연구 및 소동파의 작품과 기타 작가의 작품의 비교연구는 부동한 측면에서 소동파의 매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는 오로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를 연결시켜 연구한 간행물논문은 많지만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와 관계의 관계를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으로 탐구한 논문 및 학위논문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다. 연구내용

본 논문은 북송과거정책을 정리하고 소동파의 교육사상을 연구 하였으며 소동파가 해시(解試), 성시, 전시 및 제과시험에 참가한 과정을 정리하여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의 벼슬길, 과장문풍, 유명해진 것에 대한 거대한 영향을 탐구하였고 그의 작품 중에 간혹 나타난 소동파의 교육철학과 과거제도에 대한 논술을 분석하여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인식과 소동파가 북송과거시험명제, 시험규칙, 시험내용, 취사방법에 대한 견의와 행위를 귀납하였고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일으킨 작용을 고찰하고 연구하였다.

라. 연구의 중점, 난점과 특점

1) 연구의 중점, 난점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상호영향의 관계는 본문에서 해결하려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가 받은 교육, 과거의 길, 벼슬의 길, 과장문풍 및 유명해짐에 대한 영향과 소동파가 북송과거개혁과 발전에 대한 반작용력은 본문이 연구하려는 중점이자 난점으로 된다.

2) 특점

문장은 북송과거정책에 대한 정리와 고증의 기초 상에서 소동파가 해시, 성시, 전시 및 제과시험에 참가한 과정을 정리하여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또렷한 인식을 갖고 있고 과거시험명제, 시험규칙과 내용의 개혁 및 북송중후기의 용관폐단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독특하며 북송과거제도에 대하여 반작용력을 산생하였다. 소동파의 독특한 견해, 이성적인 태도와 판단정신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북송과거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소동파는 본의 아니게 북송중후기의 과장문풍을 인도하게 되었고 소동파와 북송과거시험의 관계는 일종 상호영향하는 관계이다.

마. 북송연표

北宋年表			
북송 (960년—1127년)			
시호	이름	통치연간	연호
태조	조광윤	960년—976년	건륭 960년—963년 건덕 963년—968년 개보 968년—976년
태종	조광의	976년—997년	태평흥국 976년—984년 융희 984년—987년 서궁 988년—989년 순화 990년—994년 지도 995년—997년
진종	조항	997년—1022년	함평 998년—1003년 경덕 1004년—1007년 대중상부 1008년—1016년 천희 1017년—1021년 건흥 1022년
인종	조진	1022년—1063년	천성 1023년—1032년 명도 1032년—1033년 경유 1034년—1038년 보원 1038년—1040년 강정 1040년—1041년 경역 1041년—1048년 황유 1049년—1054년 지하 1054년—1056년 가우 1056년—1063년

영종	조서	1063년—1067년	치평 1064년—1067년
신종	조옥	1067년—1085년	희녕 1068년—1077년
			원풍 1078년—1085년
철종	조후	1085년—1100년	원우 1086년—1094년
			소성 1094년—1098년
			원부 1098년—1100년
휘종	조길	1100년—1126년	건중경국 1101년
			승녕 1102년—1106년
			대관 1107년—1110년
			정하 1111년—1118년
			중하 1118년—1119년
			선하 1119년—1126년
흠종	조환	1126년—1127년	경강 1126년—1127년

바. 용어의 정리

東坡易傳 (동파역전)

소동파는 문학의 호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주역에도 깊은 연구가 있다. 어릴 적에 장역간(張易簡)을 스승으로 삼아 역을 공부하였다. 45세 때 황주의 유배시기에 시작한 작품으로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정하고 완성한 작품이다. 그 후 채경(蔡京) 등 용관이 출판을 저애했고 작품을 소멸하려 했으나 <피령역전(毗陵易傳)>이란 명칭으로 출간되었다. 피령(毗陵)은 소동파가 세상을 떠난 상주(常州)의 고대명칭이다.

日喻(일유)

1078년, 소동파가 지은 형상적인 비유로 현상과 도리를 설명한 의논문(議論文)이다. 일유에서는 맹인이 태양을 쳐다보는 것으로 지식과 도리는 눈과 귀의 공능을 바꿔서는 터득할 수 없다는 뜻을 표현했다.

殿試 (전시)

당조의 고종황제가 창설한 과거의 최종단계다. 자금성(紫禁城)내의 보화전(保和殿)에서 응시 한다. 황제가 직접 심사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전시에서의 일등이 바로 (状元)장원이다.

시험 절차는 레벨에 따라:

(현시)→(부시)→(원시)→(향시)→(회시)→(전시)로 구분하고

그 합격자들은

(동생)→(생원)→(거인)→(공사)→(진사)로 불리 운다.

省試 (성시)

송조시기에는 회시(會試)를 성시(省試)로 불렀다.

制科 (제과)

중국봉건사회에서 인재선발을 위해 임시 실행하는 비정규적인 과거시험수단이다. 制舉(제거)로도 불리는데 송대후기에는 공거(貢舉)에 밀려났다.

貢舉 (공거)

관료들이 황제한테 인재를 추천하는 방법.

元祐黨人碑 (원우당인비)

회종시기 채경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원우부터 원부사이의 문인과 정객인 사마광, 문연박, 소동파, 황정견, 진관 등 309명을 奸黨(간당)으로 무함하여 이름을 비석에 새겨 천하에 반포 하였다. 후에 회종의 명령으로 비석을 회멸하였다.

宋遼金元 (송요금원)

중국력사에서 한족의 송조(宋朝)、거란족의 요조(遼朝)、여진족의 금조(金朝)와 몽골족의 원조(元朝)의 병칭이다. 네 조대는 서로 다른 민족이 통치하였고 아세아 대륙에서 다민족의 투쟁시기였다.

三代 (삼대)

중국력사에서 하조(夏朝)、상조(商朝)、주조(周朝)의 병칭이다. 하조는 중국력사상 처음으로 세습제의 조대였다. 상조는 중국력사의 두 번째 조대이고 처음으로 문자기재를 찾아 볼 수 있는 조대였다. 주조는 마지막 세습제 노예국가였다.

歐陽修 (구양수)

북송시기 저명한 정치가, 문학가이고 송대 문학사에서 최초의 문단맹주다. 한유, 유종원, 소씨삼부자, 왕안석, 증공과 함께 당송팔대가로 불리고 한유, 유종원, 소동파와 함께 천고문장사대가로 후세의 존경을 받았다.

司馬光 (사마광)

북송의 정치가, 역사학자, 문학가다. 중국 역사상 첫 편년체의 통사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람이다. 왕안석의 변법을 반대하여 조정에서 15년간 은퇴했었다. 사마광의 됃됨이는 유가학파에서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불리고 후세의 추모를 받는다.

王安石 (왕안석)

송대의 사상가, 정치가, 문학가이자 이름난 개혁가이다. 왕안석은 자가 개보(介甫), 호가 반산(半山)이다. 당송팔대가중의 한 사람이다. 희녕(熙寧)3년(1070년)에 재상으로 되어 저명한 왕안석변법을 실행한다. 보수파, 즉 구파의 반대로 희녕(熙寧)7년(1074년)에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蔡京 (채경)

북송시기에 네 번이나 재상으로 있으며 17년간 재위하였다. 네 번의 오르내림을 겪은 중국역사상 일인이다. 중국10대간상중의 한 사람으로 많은 죄명과 악명으로 후세에 널리 알려져 있다.

蘇門四學士 (소문사학자)

소동파의 제자중 황정견(黃庭堅), 진관(秦觀), 조보지(晁補之), 장퇴(張耒)를 가리킨다. 이격비(李格非), 료정일(廖正一), 이희(李禧), 동영(董榮)을 소문 후사학자(蘇門後四學士)라고 불리운다.

II. 소동파의 교육사상

송대 학자들이 관심하고 논술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교육과 연관하기 때문에 <중국교육통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송대의 학자들은 거의 다 저명한 교육가이다."¹⁾ 견식이 풍부한 학자들과 상등하게 소동파는 중국역사상 대표적인 다재다능한 인물로 수많은 교육언론을 발표하였지만 소동파의 거대한 문학적 성과에 국한하여 그의 교육사상은 다년간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소동파문집>, <동파역전> 등등의 소동파가 남긴 작품들 속에는 교육목적의 선택, 교학내용의 다양성, 교학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풍격을 갖춘 교학주장 및 좌절교육과 생명배려분야에 관한 품위 있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교육목적

가. 벼슬을 하거나 말거나 에서의 독립적인 인격

소동파는 <령벽장씨원정기(靈壁張氏園亭記)>에서 군자의 벼슬에 관한 견해를 얘기한 적이 있다. "古之君子, 不必仕, 不必不仕。必仕则忘其身, 必不仕则忘其君……。"²⁾ 냉성금은 <소동파의 철학사상과 문예사상>중에서 이 단락의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게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뜻이 깃들여 있고 소동파는 이를 빌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벼슬을 하거나 말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개체적인 독립과 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소동파는 백거이(白居易)와는 달리 조정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잠수 타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산림을 그리워하지 않고 산림에 있으면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빈과 부를 막론하고 그는 모두 겸하여 도울 수 있었고 '독선(獨善)'을 견지하였다. 이 모든 것은 자아발전의 기초 상에서 시작된 것이다.³⁾ 중국의 사인들은 대다수 유가의 공자와 맹자를 스승으로 삼고 유가의 정진(精進)정신을 기탁으로

1) 毛礼锐, 沈灌群. 中国教育通史[M]. 济南: 山东教育出版社, 2005.

2) 苏轼著. 孔凡礼点校. 苏轼文集[M]. 北京: 中华书局, 1986. 369.

3) 冷成金. 苏轼的哲学观和文艺观[M]. 北京: 学苑出版社, 2003. 338~339.

하며 "우수한자는 벼슬을 하라(學而優則仕)" 와 <대학>정신;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천하의 흥망성쇠는 매개 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사상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소동파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재관은 일반적으로 유가가 견지하는 것과는 다르고 백거이와도 다른 점은 영달(榮達)시에 남긴 한 쌍의 산림을 바라보는 눈빛이다; 소동파의 인재관은 사람 자체를 충분히 존중한다. 사람 자신의 발전을 충분히 존중하여야만 인재는 개체의 독립과 자유를 진정으로 보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멋스럽게 오고가고를 할 수 있으며 벼슬을 하거나 말거나의 선택에서도 영활함을 나타내야만이 역경 중에서 인격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순탄한 환경에서도 또렷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인재에 대하여 너그러운 태도로 대하였다. 군자라면 세상에 책임을 가지라고 하였고 세상을 구할 능력이 있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힘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광란을 장악할 능력이 있으면 위험과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을 고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책임과 권력을 분명하게 구분한 주장은 개인의 품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건립한 것이므로 더욱더 도리에 맞고 매개인의 생명은 모두 중시를 받아야 하며 매개 인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개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동파는 또한 인재가 아둔한 군주 혹은 상사를 만났을 때 취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소동파는 만약 명지하지 못한 왕을 만났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멀리 하여 자신의 덕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 독특한 인재평가관념-"대절"을 중시, "과정"을 반대

소동파의 인재관념에서 "대절(大節)"을 중시하고 "과정(過正)"한 행위를 반대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다.⁴⁾ 대절은 주요한 원칙을 말하고 과정은 과분한 올바름을 가리킨다. 무망(無妄)에는 "뜻대로 자연스럽게 되라(順其自然)"는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선인들의 중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동파역전>에서의 해석에서는 특별히 두 점을 강조하였는데 하나는 과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재선발에서의 정은 대절에서의 정이면 되고 소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적의 덕행이 충실한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4)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107.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는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고 소절마저 엄하게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소동파는 천하를 헤치는 독으로 비유하면서 비판하였다.⁵⁾ 이외에도 <사광론(霍光論)>중에서 소동파는 자고로부터 대정(大正)을 중시하고 소부정(小不正)을 소홀히 하고 기절(氣節)을 중시하는 관점은 소동파가 인재평가관념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표현하였고 소동파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흑간 제멋대로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도학가 정이(程頤) 등에게 "불경(不敬)"이라고 꾸짖음을 받은 사상원천으로 되기도 한다.

2. 교학내용

가. 사회교화를 중시

소동파는 북송의 백성을 관심하고 조정에 충성하는 학자형교육가로서 교화의 작용을 매우 중시했다. <책문>중에서 일관적이고 과거에 인재양성의 법칙과 방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교양과시방법(教養課試之法)을 비판하였고 <책별(策別)>중에서 교화를 안민하는 첫 순위에 놓고 삼대의 인민이 위협할 때 서로 도우면서 이익을 챙기고 의리를 잊지 않으며 안정함을 추구하고 성과를 보인 것은 모두 교화를 잘 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나. 인의예악교육

소동파는 유가전통중의 인, 의, 예, 악에 관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는바 <안만민(安萬民)>중에서 고인의 말을 빌려"世之儒者常有言曰：三代之時，其所以教民之具，甚詳且密也。學校之制，謝饗之節，冠婚喪祭之禮，粲然莫不有法。"⁶⁾ (하, 상, 주 시기에부터 실시한 상세한 교육제도, 답례의법, 성인식 혼인법 장례, 제사에 대한 묘사.)와 "昔武王既克商，散財發粟，使天下知其不貪；禮下賢俊，使天下知其不驕；封先聖之後，使天下知其仁；誅飛廉，惡來，使天下知其義，"(주무왕의 재산을 천

5)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107.

6)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254.

하와 공유하려는 소박함, 인재에 대한 배려와 존경에서의 허심함, 선배성인의 후손에 대한 관대에서의 인자함으로 상조정권을 뒤엎고 천하를 통일한 이야기)7)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례야 말로 천하를 교화하는 실체라 하였다.

만약 진정한 인의예악의 교육을 성취하면 "天下聳然皆有忠信廉恥之心，然後文之以禮樂，教之以學校，觀之以謝饗，而謹之以冠婚喪祭。"8) (천하와 백성은 충신염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학문 속에 예와 악이 섞이며 학교교육이 흥행할 것이고 답례 현상을 자주 보게 되며 신중하게 진행되는 성인식, 결혼식, 장례와 제사들을) 볼 것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소동파는 전통적인 유가의 교육내용을 매우 중시하고 이로 풍속을 성숙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동파가 교육내용에 관한 견해는 여기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 더 존재한다. 우선먼저 소동파는 유명무실한 학술들을 반대하였고 삼대의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선실후명(先實後名)의 교학순서를 제기하였다. 먼저 인간사정을 고려하여 선과 후를 정하여야만(擇其近於人情者而先之)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 없는 환경 속에서 편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인성화한 학습 속에서 진정한 인의예악의 정수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소동파가 <동파역전>에서 감(坎)을 해석할 때에도 같은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다. "事之待教而後能者，'教事'也。君子平居'常'其'德行'，故遇險而不變。'習'為'教事'，故遇險而能應。"9) (일을 격고나면 처사를 배우게 되어 능자로 되고 군자는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험난을 처사하여 습관처럼 자연스레 넘어갈 것이다.) 소동파는 이러한 평시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 도리에 대한 학습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고 소동파는 이것저것 배우지만 의지는 도에 있지 않다(雜學而不志於道)와 도만 추구하고 학습을 하지 않는(求道而不務學) 행위를 반대한다. <일유(日喻)>중에서 작가는 부지런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오연률(吳彥律)을 위하여 문장을 지었다."昔者以聲律取士，士雜學而不志於道。今者以經術取士，士求道而不務學。渤海吳君彥律，有志于學者也，方求舉於禮部，做《日喻》以告之。"10) 소동파가 추앙하는 "학"은 단지 도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술이외의 내용도 포함한 것이며 바로 이 도학외의 것이 사람의 인생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다.

7)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254.

8)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255.

9)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129.

10)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1981.

다. 문학예술교육

소동파는 일생에 수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문학 분야에서의 성과가 현저하고 스스로 풍격을 이루었으며 고인을 미신하지 않고 매개의 사물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심미관은 그의 학생과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문장에 관하여 그는 문맥이 자연스럽고 자태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남행전집서(南行前集敘)>중에서 그의 문장은 "山川之秀美, 風俗之朴陋, 賢人君子之遺跡, 與凡耳目之所接者, 雜然有觸於中(산천의 아름다움, 풍속의 소박함, 현인군자의 유적, 평민백성들의 수다들)"¹¹⁾속에서 탄생하였다고 묘사 하였다. 자연산천, 진실한 풍속, 진실한 감정에서 뿜어 나오는, 예하면 작가가 자신이 문인으로서의 경력을 평가할 데 관한 통찰력이 있는 문장들을 창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吾文如萬斛泉源, 不擇地皆可出。在平地, 滔滔汨汨, 雖一日千里無難。及其與山石曲折, 隨物賦形, 而不可知也。所可知者, 常行於所當行, 常止於不可不止, 如是而已矣! 其他, 雖吾亦不能知也".¹²⁾ (만곡원천마냥의 도량, 일행천리를 할 듯 한 도로의 평탄함과 우주가 부여한 산곡의 골절된 자연형태 등 알려진 현상들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태연함에 대한 묘사) 만곡원천(萬斛泉源)의 도량을 품은 듯 한 마음가짐이야 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고 텅 빈 가슴속에 공허한 마음가짐에는 아무리 기교를 부린다 하더라도 억지로 된 노력을 한들 출중한 문장을 창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동파야 말로 가슴속에 "만곡원천"을 지닌 천재작가이다. 그의 산문창작을 놓고 말하면 "만곡원천"은 정론과 사론에서 표현되고 도변랑용(濤翻浪湧), 호호탕탕(汪洋浩瀚)으로 묘사할 수 있다. 기행문, 서신, 서문과 발문(序跋) 등 잡문은 회선격당(迴旋激蕩)하고 연파생색(煙波生色)하다고 평가하였다.

소동파의 교육내용은 시문외의 회화작품분야도 포함한다. 그는 물체를 통하여 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추구하였는데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기색과 품격을 전달하여야 하되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경계에 도달해야 함을 더욱더 중시하였다. <서모힐람전연우도(書摩詰藍田煙雨圖)>중에서 왕유(王維)의 시화에 대하여 "시를 음미할 때에는 시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을 관상할 때에는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평가하

11)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323.

12)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323.

였다.¹³⁾ <한간마(韓幹馬)>중에서 "少陵翰墨無形畫, 韓幹丹青不語詩。(두보의 시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고 한간의 그림 속에는 시를 읊어 낼 수 있는 듯)"¹⁴⁾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포영승화후(書蒲永升畫後)>중에서 물을 "활수(活水)"인 듯 그려낸 것을 찬미하고 파도치는 물결은 굴절된 산석을 에돌아가 듯 자연스럽고 진실한(畫奔騰巨浪, 與山石曲折, 隨物賦形) 기색을 보아 낼 수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순간 "음풍이 엄습하고 모발이 서는(陰風襲人, 毛髮為立)"¹⁵⁾ 느낌을 받는다고 묘사하였다. 회화가 이러한 기색과 품격을 전달하는 경계에 도달하려면 예술적으로 자연스러움에 도달하여야 하고 소동파가 말하는 "무인태(無人態)"혹은 "진태(真態)"의 상태에 빠져들어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동파가 문장을 짓고 시를 짓는 것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바로 진실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추구덕분에 소동파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졌고 문과가 가득한 북송시기에 한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교학관념

가. 교학중의 도와 학의 관계

교학과정분야에서 소동파는 도는 접근하여 얻을수 있으나 강요해서는 안된다(道可致而不可求)고 강조하였는데 도의 원시적 함의는 도로와 평탄한 여정을 가리키며 점차적인 발전을 도리로 하여 사물의 규율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긴 역사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역경(易經)>중에 "複自道, 何其咎(자신의 길에 돌아가니 무슨 죄가 있겠냐)"(<소축(小畜)>), "履道坦坦(처사를 평탄한 거리를 걷는 것 마냥 견지하라)"(<여(履)>), "反復其道, 七日來復(칠일의 주기로 세상의 반복함의 도를 말함)"(<복(復)>), 모두 도로를 의미로 하고 있다. 로자의 <도덕경>, 42장속에는 도(道)가 천지만물을 산생하였다고 생각하되 그 과정은 "도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가 둘을 이루고, 둘이 셋을 이루고, 셋이 만물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의 하나는 태극이고 둘은 음과양이며 셋은 하늘, 땅과 사

13)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2209.

14) 苏轼著.王文诰辑注.苏轼诗集[M].北京:中华书局,1982.48.

15)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408.

람을 가리킨다. 도가 만물을 산생한 후 또한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근거로 되어 천지만물 속에 내포 되어 있고 도는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침범할 틈이 없으며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역전>에서는 도는 대립 면이 상호전환 하는 보편적 규율이라 하였다. 또한 도를 형태가 없는 추상적 규율로 해석하여 보여지는 구체적 사물들과 구별하였다. 중국철학사에서 도의 범주는 도가에서 제출하여 후에 각 학파의 학설에 받아들였고 비록 각자 부동한 이해가 있었지만 이미 우주의 근원, 보편적 규율성의 대명사로 되었다. 각 학파학설을 통달한 소동파는 "도"를 자신의 학술의 범주에 넣었다. 도와 사회생활의 긴밀한 연결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도를 이해하려면 단지 몇 권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여러 가지 학문을 골고루 학습하여야 하고 또한 감성적 경험을 홀시하지 말아야 하고 장기간의 사고와 탐색을 거쳐야만 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일유(日喻)>에는 도에 관해서 남방에 수영 능숙한사람이 많은(南方多沒人) 원인은 일곱 살에 물을 건너고, 열 살에 물에 뜨며, 열다섯에 잠수가 가능하니 강물과 함께해온 자는 십오 세면 물의 도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日與水居也, 七歲而能涉, 十歲而能浮, 十五而能浮沒矣。夫沒者, 豈苟然哉, 必將得于水之道者。日與水居, 則十五而得其道) 표현하였다. 만약 이론만 추구하려 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없으면 "북방의 용자(北方之勇者)"처럼 물에 빠져 죽는 자(未有不溺者也)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여기에서 소동파가 학습과정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 도와 학의 관계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는 자가 도를 닦는 것을 목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도를 닦는 필수적인 도경인 것이다.

나. 교학원칙

1)교육을 받는 자의 주동성을 중시하다.

소동파는 교육을 받는 자의 주동적인 태도를 주장하였는바 그는 몽('蒙'제22페이지)의 괘를 해석할 때 몽을 만물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을 뿐 자고로 그 속에 바른 면이 존재한다고(有蔽於物而已, 其中故自有正也)해석하였다. 소동파는 선과 악을 구체적으로 까밝히지 않고 '자고로 바르다'로 표현하면서 바른 면은 가려질수 없고 내

16)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1981.

면과의 투쟁에서 꼭 체현되어 올바른 마음을 얻을 것이고 외적인 노력으로만 강요
 한들 삼차의 노력을 하여 얻었을 지라도 바름이 아닐 것이라(蔽雖甚，終不能沒其
 正，將戰於內以求自達，因其欲達而一發之，迎其正心，彼將沛然而自得焉。苟不待其
 欲達而強發之，一發不達，以至於再，三，雖有得，非其正矣。)하였다.¹⁷⁾ <동파역전>
 은 성품의 선과 악을 논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바른 정(正)이 존재한다
 고 강조하였는데 이런 "정"은 흑간 감추어질 수 있는데 결국엔 내심세계의 "전(戰)"
 을 통하여 "달(達)"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이에 계몽까지 추가한다면 그 효
 과를 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을 받는 자가 주동성이 없으면 교육하는
 자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동파는 "시중(時中)"에 대하
 여 특별히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자의 분발하지 않는 자는 계발해줄 필요 없고 습득
 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지도하지 말라.¹⁸⁾ '거일반삼'¹⁹⁾을 못하는 자
 한테는 더 이상의 반복이 필요 없다 (不憤不啓，不悱不发。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
 復也)의 교학주장과 비슷하고 형식도 흡사하며 설명은 더 섬세하다고 할 수 있다.

소동파는 또 "사달(辭達)"을 제기하였는데 달(達)은 문장과 언어의 막힘없는 원
 활함(通而不復塞)을 의미하는데 학습과정에서 일정한 경계에 도달한 후의 필연적결
 과를 말한다. 소동파의 문예사상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달(辭達)"이다. <여
 왕양서(與王彥書)>에서 소동파는 공자의 말을 본떠서 뜻의 표현이 충분하면 되고
 과분한 보탬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辭達而已矣。辭至於達，止矣，不可以有加
 矣!)²⁰⁾하였고 <여사민사서(與謝民師書)>에서 뜻을 표현하였으면 문장에 대한 표
 현 수법을 과용 하지 말라고(辭至於能達，則文不可勝用矣)²¹⁾ 하였는데 이러한 "달
 (達)"은 그가 "몽"괘 해석중의 "추달(求達)"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아 낼 수 있다.

2) 교육규율을 존중하다.

소동파는 교육하는 자에게 교육규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단순한 폭력으로 교
 육목적에 도달하여서는 안 되고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오직 방위로만 사용

17)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22.

18)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22.

19) 거일반삼 [舉一反三]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안다는 뜻으로, 매우 영리함을 이르는 말.

20)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1422.

21) 苏轼著.孔凡礼点校.苏轼文集[M].北京:中华书局,1986.1418.

하여야 하지 만약 때리고 두드리는 것으로 교육성과를 얻어 내려 한다면 크나큰 실수로 될 것이니 교육을 받는 자의 인신권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의 도를 터득 못하여 매를 가하는 것은 과분하다고(发蒙不得其道, 而至于用击, 过矣。)22) 하면서 교육자는 반드시 도(道)를 알아야 교육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계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3)매일 선을 닦는 것을 주장하다. (日修其善)

소동파는 "매일 선을 닦는 것"을 주장하였다. 일상적수양의 중요성은 형성한 "불가득(不可得)"한 결과에 있다. 이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일단 형성되면 어떤 외력을 가하든 개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4)교육환경의 최적화와 개선을 강조하다.

소동파는 교육환경의 최적화와 양성(養成)을 주장하고 환경이 개인의 성장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물 정(井)자의 괘를 해석할 때 소동파는 깨끗하지 않은 우물에서 청결한 물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우면 물도 흐려질 것이니 그 환경에 따라 좋고 나쁨을 구분 할 수 있다고(井未有在潔而不清, 處穢而不濁者也, 故即其所居, 而邪,正決矣。)23) 생각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동파는 타고난 천재는 없거늘 키우면 변화를 보일 것이고 안 키우면 죽어가며 장소를 선택하여 키워야 한다고(君子所受于天者無幾, 養之則日新, 不養則日亡, 擇居所以養也。)24) 생각하였다. 타고난 좋은 환경은 아주 적은 것인이라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부단히 환경을 양성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예하면 소동파가 말한 "매일 선을 닦다"와 소동파가 생각하는 살 곳이 있으면 청결할 것이고 깨끗한 곳에서 먹으며 먹노라면 새롭게 성장하니 매일의 성장변화에서 궁(窮)을 벗어날 것이다(得其所居則潔, 潔則食, 食則日新, 日新則不窮。)라는 주장에서 보아 낼 수 있다. 여기에서 소동파는 "우물을 키우다(井養)"문

22)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24.

23)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213.

24) 苏轼著.东方龙吟注.东坡易传[M].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2.213.

제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물 정(井) 그 자체의 양성을 중시하였다. 우물 자체는 독립적인 존재고 그 속의 물의 깨끗함과 어지러움은 우물의 운명을 좌우지하는데 우물의 위치가 타당하지 않으면 물도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은 마시려 하는 사람도 없고 물이 누적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더더욱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우물의 위치가 타당하면 물이 깨끗하기 마련이고 깨끗하면 마시고 마시노라면 매일 부단히 새로운 물이 모이게 된다고 하였다. 우물이 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지 하나, 바로 사람들이 매일 식용하여 새로운 수원으로 부단히 보충하여야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례는 그의 "未窮而變(궁하지 않음이 바로 변화과정이다)"이론을 위하여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바로 궁하지 아니 하려면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고 우물속의 물이 깨끗하다 하여도 사람이 밀집된 곳에 있어야 하며 편벽한 곳에 있으면 마시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우물이 사람을 키운다(井養人)는 타인과 교류하거나 외계의 소모로 매일 새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孤芳自賞者(자신만을 칭기는 자)는 깨끗한 몸을 오래동안 유지하기 힘들고 자아를 갇혀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 때문에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사람들더러 깨끗한 우물이 대표하는 환경의 창조에 대한 중요성을(修治) 깨우치는 과정이 또한 악을 다스리는(御惡) 과정이니 수련하든 새롭게 건설하든 우물의 위치는 개방적이고 편리하여야만 새로운 샘물이 부단히 주입될 수 있어 우물을 키우다(井養)의 사상이 쇠퇴하지 않고 부단히 계승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우물을 대하는 것처럼 교육상대자신의 수양 및 처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중시할 것을 주장하고 또한 반드시 날마다 새로움을 유지하고 하나도 느슨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으며 자신과 외계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청결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더욱더 크고 빠른 진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소동파의 덕육관념

(1) 좌절교육

수(需)의 괘는 <주역(周易)>중의 제5괘, 건(乾)은 하 감(坎)은 상, "건(乾)"은 하늘, 성질의 견강함을 말하고; 감(坎)은 물, 성질이 험하다고 하여 <단전(象傳)>

에서는 위험이 바로 앞에 막아서고 있는데, 굳건하여 빠져들지 않는다(剛健而不陷)"; 하지만 <상전(象傳)>에서는 구름은 하늘에 떠 있고, 바람이 불어서 가거나 벼락이 쳐서 비로 되어 모종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적혀있다.²⁵⁾ <동파역전>에서 한 면으로는 건(乾)의 "위험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고난을 알면서도 전진하는 불굴의 정신을 제창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사람들이 곤경 앞에서 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겸해서(兼懷而兩之)할 수 있는 태도와 행위 제창하였는데 그는 고난에 부딪혀도 평상시처럼 생활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묘술 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광대낙이의 군자(廣大樂易之君子)²⁶⁾라고 한다. 이는 소동파가 좌절을 당했을 때의 경험이기도 하고 슬픔이 가라앉은 후에 그 당시의 고통을 돌이켜 생각한 후 세인들에게 남긴 심각한 사고이기도 하다. 또한 <주역>을 해석할 때 인간미가 흘러넘쳤기에 그 교육영향이 더욱 컸던 것이다.

(2) 생명교육

소동파는 항상 교육의 상대는 사람임을 강조하였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 개성, 가능성, 생성성(生成性), 불가진술성(不可盡述性), 자유적인 성질, 개방적인 특성과 초월성(超越性)²⁷⁾은 생명교육에서의 제일 진실하고 직접적이며 믿음직스러운 기초이다.²⁸⁾ 이러한 기초적의 생명교육은 개체의 상태와 원리, 개체가 존재하는 물질과 환경 및 사람이 존재하는 문화 환경과 관계된다. 사람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도 교육에서의 중요한 문제로 소동파의 대부분 사상의 핵심은 바로 그가 생명교육과 인간성에 대한 독특한 인식에 있다.

25) 雲地上天.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과 땅 사이의 넓고 커다란 변화무상한 공간을 가리킴.

26) 苏轼著. 东方龙吟注. 东坡易传[M].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128.

27) 생명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에 관한 묘사이고 윤리적 차원을 초월하는 함의에 대한 묘사다.

28) 刘济良. 生命教育论[M].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4.

III.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

소동파가 지방에서 감시관(監試官)으로 있었고 관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권지공거(權知貢舉)²⁹⁾까지 임명 받았었다. 그 기간에 그는 자신의 진언(進諫)³⁰⁾ 직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북송통치에 대한 건의와 책략을 아낌없이 다 하였다. 특별히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의견과 건의는 견해가 독특하고 논증이 유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소동파는 친구들과의 교제 중에서도 자신의 과거제도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비록 대부분 의견들이 집권자한테 채택되지 못했지만 후세에게 많은 연구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남겨주었다. 현존한 소동파의 작품 중의 시, 문, 서신(書信), 상서(上書)등에는 소동파가 과거제도에 대한 견해와 건의가 수록 되어 있다.

1. 소동파가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인식

가. 과거(科擧)의 작용

소동파는 과거는 인심을 모으는 작용을 하고 양사(養士)³¹⁾와 취사(取士)³²⁾의 이중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논양사(論養士)> 중에, "지(智), 용(勇), 변(辯), 역(力)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자는 천민(天民) 중의 수결(秀傑)이고 수, 당시기부터 현재까지, 과거에서 출처한 것에 관한 상세한 논술을 하였다.³³⁾

소동파는 양사로부터 시작하여 삼대이래의 통치자들은 사회에서 장기간의 시간에 형성된 풍속과 습관에 의하여 법을 설립하고 "지, 용, 변, 역"은 모두 통치계급을

29) 당조와 송조시기 공거시험의 감시관을 가리키는 칭호.

30) 군주나 어른께 간언을 드리면서 권고나 조언을 하는 행위.

31) 선비를 부양한다는 뜻으로 전국 시대에 재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망과 지지를 얻어 자신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선비들을 많이 모아 두었다.

32) 주로 과거를 통하여 인재를 뽑은 행위를 말한다.

33) 苏轼著,傅成,穆俸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738 页.

위하여 복무한다고 논술하였다. 삼대에는 관학(官學)³⁴⁾으로부터 인재를 뽑았고 관학은 양사의 직책을 도맡아 하였으며 전국시기로부터 진(秦)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관료(官僚)는 제후(諸侯)³⁵⁾의 빈객(賓客)³⁶⁾ 속에서 나왔고 제후는 학사를 양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제후국을 통치하고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배양하는 목적을 실현하였다. 한(漢) 조이후로 군학(郡學), 현학(縣學)³⁷⁾을 설립하여 인재를 배양하였다. 위(魏),진(晉)조로 부터는 찰거제(察舉制)³⁸⁾의 추천형식으로, 수조에 이르러 과거제도를 창립하였고 당대에서는 과거제도를 계승 및 발전하여 보완시켰고 과거의 양사와 취사의 공능을 강화시켰다. 북송과거제도가 당조의 제도(唐制)를 답습한 것은 그 이익에 잇따라 손해도 따르느바 과거의 양사와 취사의 공능을 더 한층 강화시켰다.

소동파는 또한 "인재를 채택하는 방법은 자고로 완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만약 과하게 탁이하고 출중한 자를 임용하면 그들이 방탕하고 도가 없이 행동할 것 같아 근심하고; 자율적인 사람을 녹취하면 그들이 영활하지 못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근심한다. 학사들의 응시(應試)문장은 워낙 불안정하였지만 북송과거개혁 이후로 개진을 하였고 책론(策論)³⁹⁾, 시부(詩賦)에서 알짜만 취하여 복고풍을 점차 회복하였다.

소동파는 과거는 그 시대의 문풍과 사회풍속을 영향한다고 생각하였다. 소동파는 과거에서 나온 문장들(科場之文)은 풍속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과거취사표준이 학풍과 문풍에 대한 영향을 "조상들의 시대에는 사율(辭律)⁴⁰⁾을 숭상하였으니 시에 재능을 가진 학사들은 숨씨를 마음껏 뽐냈고, 가우(嘉祐)이래 복고문풍이 소중하였고 책론은 천하에 흥행하였지만 시부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다."⁴¹⁾ 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소동파는 시문(時文)을 배우지 않아 문풍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웠으며 허위가 없었다. 하지만 가우2년 태학체(太學體)⁴²⁾를 숭상한다는 타락한

34) 봉건시기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

35) 중앙정권에서 선거 받은 각 지방의 최고 집권자들을 말함.

36) 양사로 제후나 주군의 소속인 인재들을 말함.

37) 관학과 같은 통치계급에서 설립한 학교.

38) 지방에서 성망과 재능에 의하여 인재를 주군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말함.

39) 목전의 정치에 관한 건의들을 적은 문장.

40) 중국한문학의 법칙과 기준의 이론적 명칭이다.

41)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843页.

42) 북송시기 유행하였던 형식에만 구애되고 내용이 빈약한 문체다.

학사와 응시자들이 나타난 현상은 기필코 과거문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소동파는 <일유(日喻)>중에서 "옛사람들은 성율(聲律)로 학사를 뽑아 이것저것 배우느라도(道)에 의지를 갖지 않았고 현재는 경술에 의하여 학사를 뽑아 학사는 도를 추구하려 하지만 착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⁴³⁾ 고 얘기 하였다.

소동파가 어릴 때 고전서적들을 암송하고 학습하며 경서와 사서(史書)를 베끼는 것은 모두 과거를 위한 준비였다. 북송시기의 과거는 소동파를 비롯한 학사들의 학풍과 시대의 문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사회문화를 개선시키는 작용을 발휘하였다.

나. 과거의 득실(得失)

소동파의 유명해짐과 성과는 과거의 덕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소동파가 과거제도에 대한 인식은 맹목적인 칭찬과 긍정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며 죽은 글만 배운 자는 나라를 잇을 것이고 오히려 도와 법을 익힌 자가 시부를 헌사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결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했다.⁴⁴⁾ 그는 지금의 책을 읽어 관직을 취득한 자는 모두가 굴곡이 많고 규칙에 맞게 행동했어야 했고 자기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⁴⁵⁾ 후배 학사들에게 공명(功名)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성과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주었다.

소동파는 과거는 문인들이 무의미한 문장을 쓰고 모방하는 기풍은 문학발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였다. 소동파는 <與王庠書>⁴⁶⁾중에서 “어릴 적에 고인을 의논하기 좋아했고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변화하여 늙어서는 젊었을 때 했던 말에 후회를 하였으니 이것으로 당신한테 기꺼이 얘기해 주겠네. 요즘 문인들의 통폐는 문장에 빈말이 많고 실용성이 약한 것이다. 가의(賈誼), 로질(陸贄)의 학설은 대부분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나는 늙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늘……. 시험관들은 요즘 시험에서 하나같이 똑같은 답장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합격은 절대 불가능하며 자신심이 부족하다 해도 세상에 의해 무조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운명이 정해진 것은 절대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득실에 과분한 신경을 쓰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43)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2045页.

44)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594页.

45)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860页.

46) 왕상(王庠)은 소동파와 망년지교(忘年之交)다. 그리고 소씨문인이고 소동파 즉하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학문을 공부하기를 희망한다.”⁴⁷⁾고 하였다.

소동파가 <사매용도서(謝梅龍圖書)>중에서 "시부로 한사람의 전부를 결정 할 수는 없다."⁴⁸⁾라고 지적하였다. 시부로 응시자의 재능과 성실한 학문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시험은 시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시부로 응시자의 지향을 고찰할 수 있고 책략으로는 응시자의 끼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과거와 현재의 세상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먼저 책략을 시험하고 다음 시부를 시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⁴⁹⁾

소동파는 <답장문잠서(答張文潛書)>중에서 왕안석의 “과거에 쓰이는 서적을 통일한다.”는 작법을 극히 책망하면서 이보다 더 차한 문장들이 나타난 적은 없을 것이다 (未有如今日者也)라고 생각하였다.⁵⁰⁾ 왕안석이 과거에 쓰이는 서적을 통일하려는 주장은 당시의 문학수평의 발전을 저해 하였고 학생들의 창조성을 꺾고 그들의 총명을 휘멸하는 것이며 천하의 학문을 하나로 통일하여 문장들이 다 똑같은 면을 보인다면 단조롭고 학생들의 공부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선조들은 취사의 방법을 개선시킬 생각이 있었지만 실시하지는 않았고 소동파는 자신의 학생 황로직(黃魯直), 진소유(秦少遊), 초무적(晁無咎), 진려상(陳履常)과 장문잠(張文潛) 등에게 자신의 희망을 기탁하여 이들이 현황을 개선하고 고대학문이 폐하지 않도록 유지하기를 바랐다.

<송인서(送人序)>중에서 소동파는 또 한 번 왕안석의 학술을 비평하였다. 진사과시험은 시부가 아닌 경의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취사를 진행하였는데 일정한 정도에서 첩경(帖經), 묵의(墨義), 장구기송(章句記誦)⁵¹⁾의 부족 점을 교정하긴 하였으나 새로운 통폐를 일으켰다. 사자(士子)가 서술하고 뜻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체계를 과분하게 벗어나서 발휘하고 문풍이 과장되고 성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소동파는 시를 지어 풍자했다. “爾來又一變，此學初誰諗。權衡破舊法，芻豢笑凡飪。高言迫衛樂，篆刻鄙曹沈。……諸君況才傑，容我懶且噤。”⁵²⁾

47)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655页.

48)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656页.

49)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656页.

50)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658页.

51) 당조시기부터 전해진 과거시험 형식이다. 현대어로 빈칸 채우기, 단어 해석, 암기와 흡사하다.

52) 소동파의 작품 “감시승주시관(監試呈諸試官)”의 문구다. 시험제도를 또 개혁했으나 여전히 중점을 파악 못한 왕안석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소동파는 책론에 뛰어나 그것으로 과장에서 득의를 보았지만 시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척한 것은 아니다. <학교공거를 논하다(議學校貢舉狀)>중에서 소동파는 왕안석의 시부를 폐기하라는 작법을 이렇게 반박하였다. “당조로부터 현재까지 시부로 명신(名臣)으로 된 자가 수두룩한데 왜서 천하를 등지고 무조건 폐지하려고 하는가.” 이어서 또 경의와 책론으로만 시험을 보는 폐단을 “근 세대 사인들은 경사를 익히고임시 표적하고 서두머리와 결말부분을 바꿔놓기 쉽고 그것을 문장이라 하지만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이 폐단들은 시부를 제창하는 것보다 더 많다”⁵³⁾고 지적하였다. 소동파는 또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타인의 글을 표적하며 개인의 주장과 관점이 없어 시험관은 표준에 따라 우열(優劣)을 판단하기 힘들기에 경의로는 취사하는데 폐단이 이익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擬進士對禦試策並引狀問>중에서 소동파는 왕안석이 경의책론으로 시부를 대체한 것이 시험장의 바르지 못한 문풍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⁵⁴⁾ 그 후에 왕안석이 제창한 율학(律學)을 상대하여 설립한 명법과(明法課)는 학자들의 문학수준을 소홀히 하여 소동파는 "만권의 책을 읽어도 법을 읽지 아니하면 어찌 출세하고 현재의 군주를 요, 순과 같은 위대한 황제로 되도록 도울수 있겠나."⁵⁵⁾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말하였다.

다. 소동파가 과거제도에 대한 태도변화

과거를 통하여 벼슬길에 오른 소동파는 과거제도의 개혁에 찬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소동파는 <학교공거장을 논하다(議學校貢舉狀)>에서 "지금의 법을 여전히 실행한다면 인재들은 남아돌 것이다."⁵⁶⁾라고 서술하였다. 사람을 선택하고 임명하는 관건은 군주와 재상의 사람 보는 안구와 책임에 달렸고 복고흥학(復古興學)보다 옛날의 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과거의 법이 폐지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소동파도 과거제도의 부족 점을 인식하게 되어 <사제과계이수·기일(謝制科啟二首·其一)>중에서 과거 시험으로는 사자의 숨겨진 재능과 그 한계를 발견 할 수 없다(一之于考試, 而掩之倉卒, 所以為無私也, 然而才行之迹, 無由而深

53)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29页.

54)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843页.

55) 参考邓广铭著.王安石——中国十一世纪的改革家[M].北京:人民出版社,1975年,第70页.

56)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29页.

知.)⁵⁷⁾고 하였다. 소동파는 시험과 찰거(察舉)를 겸용하여야만 가장 이상적인 취사의 법이라고 하였다.

북송희녕(熙寧)시기 공거개혁을 진행할 때 소동파는 왕안석은 인재를 선발하는 주도자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사자(士子)에 대한 양성과 선발을 변법으로 통일시키려 하며 사자들의 응거(應舉)심리를 고려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왕안석의 복고흥학법(復古興學之法)을 반대 하면서 “만약 과거시험을 통하여 이름을 떨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인들을 선발한다면 천하와 모든 학생들한테 그것을 위하여 허위적으로 행동할 것을 배워주는 셈으로 된다.”⁵⁸⁾고 하였다. 또한 학교취사⁵⁹⁾로 과거취사를 대체하고 덕행취사로 과거취사를 대체하며 책론취사로 시부취사를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식과 재능을 배양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종이 세상을 뜬 후 사마광을 우두머리로 한 구당(舊黨)이 집권하여 원우갱화(元祐更化)⁶⁰⁾하고 일체 새로운 법을 폐지하였다. 소동파는 또한 사회발전과 학생들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구당이 경의시부로만 취사하는 주장을 반대하고 경의와 시부를 참고로 하여 취사할 것을 제창하였다.

소동파의 개혁태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사회의 안정과 사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주장을 견지하였으며 사회발전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은 소동파스타일의 인식의 가치를 체현한다.

2. 소동파의 건의의 가치

소동파가 희녕(熙寧)공거개혁에서의 주장과 의논들은 변법의 추세에 부합되지 않았지만 개혁파들이 소홀히 했던 북송의 사회현실문제들을 주의하게 되었다. 이산(李山)은 <소동파희녕과거제도변혁시의 의론>중에서 소동파의 의론특점과 가치를 제출은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귀납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분의 관점과 논술은 명확하지 않았다.

57)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586 页.

58)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29 页.

59) 취사(取仕)는 인재선발을 말한다.

60) 송조시기 철종의 연호다. 원우시기의 재상 사마광이 주도한 개혁을 말한다.

가. 역사발전의 안목에서의 과거개혁

소동파는 <학교공거장을 논하다(議學校貢舉狀)>에서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관건은 군주의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과 재상의 정치책임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복고흥학은 기필코 관리 선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의 교사(敎士), 양사(養士), 취사(取士), 임사(任士) 등으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둥이 될 만한 인재를 빠뜨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왕안석은 삼대시기의 양서의교(養序之敎)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소동파는 풍속이 변함에 따라 그 법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고 세상이 갖고 있는 법의 그 자체를 개변하려 강요하면 안된다(夫時有可否, 物有興廢。方其所安, 雖暴君不能廢; 及其既厭, 雖聖人不能復。)61)고 하였다. 자연법칙의 뜻대로 흐르는 강물은 그 존재자체가 의미를 나타내고 그것을 어기려고 강요하면 되돌기 어렵고 힘의 낭비라고 하였다. 삼대성인을 부활시켜 인재를 선거하고 양성한다 해도 그들은 과거에 하던 대로 할 것이 분명하니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譬如江河之徙移, 順其所欲而行之, 則易為功, 強其所不欲而復之, 則難為力。使三代聖人復生, 其選舉養才, 亦必有道矣, 何必由學).62)

소동파는 심후한 사학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역사의 발전변화를 승인하면서 또한 사람의 주관능동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인성발전과 제도개혁사이의 모순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역사경험을 역지로 가져다 인용하는 것은 당대의 과거개혁의 형세에 양호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복고흥학은 반드시 인민의 힘을 빌려 궁실을 다스리고 인민의 재력을 모아 유사(游士)에 대한 양성에 중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63)

인력과 재력을 낭비하고 재정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소동파는 역사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과거개혁의 불가능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개혁이 사회 안정에 주는 영향도 인식하였다.

61)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29 页.

62)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29 页.

63)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29 页.

나. 덕행교화와 시험취재의 본질적구별

우선먼저, 덕행교화(德行教化)와 시험취재(考試取才)를 혼합하여 논하면 안 된다. 시부취사를 폐지하고 덕행취사로 대체하면 사자의 덕행교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화와 치국취재(治國取材)를 혼합하여 의론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상인도로는 민중도덕교화의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 또한 "유용하다"와 "무용(無用)하다"로부터 행정능력과 시험과의 관계를 논증한 것은 소동파의 또 하나의 탁월한 인식이다. "문장을 놓고 말할 때 책론은 유용한 것이고 시부는 무익한 것이고 정치를 놓고 말할 때 시부와 책론은 모두 무용한 것이다. 그들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지만 조상들 중에 그것을 폐지하는 자가 없고 법을 설치하여 취사를 하여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⁶⁴⁾

소동파는 과거로 취사하는 목적은 인재선발을 위한데 있고 시험내용과 취사표준은 설립을 위한 간편한 조작이기에 사자의 행정능력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어 시험과 행정능력을 분간하여 보아야 하며 시부로 취사할 것이냐, 책론으로 취사할 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소동파는 멀리를 생각하여 과거취사표준이 사풍(士風)⁶⁵⁾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면서 황제더러 인재 발굴하는 면에서 당시의 거자 중에서 점차적으로 유행하는 풍속을 주의하고 안광을 멀리 바라보라고 제시하였다.

3. 소동파의 과거개혁운동

북송과거제도개혁의 조류 속에서 소동파의 개혁건의와 개혁운동은 그의 벼슬길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로 인하여 최초의 소망(初衷)을 개변하지 않고 의연히 공거 등의 과거활동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도록 하여 북송과거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산생하였다.

64) 苏轼著,傅成,穆俦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29页.

65) 사자들의 습관과 품격을 말한다.

가. 소동파가 참여한 과거활동

소동파가 벼슬길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원우(元祐)3년(1088)의 지공거(知貢舉) 직을 담임하였었다. 그 동안 소동파는 자신의 직책에 책임을 다 하여 조정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이외에도 소동파는 지방관을 담임한 시기에 당시의 학교교육과 시험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당시의 과거활동에 적극참가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실천을 가하였다.

가우(嘉祐)7년, 소동파가 산시평상부(陝西鳳翔府)⁶⁶)에서 절도관관으로 있을 때 장둔(章惇)과 함께 영흥군로(永興軍路), 진봉로(秦鳳路)⁶⁷)의 해시(解試) 시험감시관으로 있으면서 책문(策問)을 도맡아 하였다. <고재만록(高齋漫錄)>중에 "소동파는 평상부에서 절도관관으로, 장자후(章子厚)는 상주령(商州令)으로 함께 영흥군 진사를 시험하였다."⁶⁸)고 기재 되었다.

그 후로 신중이 매번 소동파를 등용할 의향이 있을 때마다 왕안석은 무조건 가로막았다. 소동파가 작성한 책문은 항상 옛것을 빌리고 지금 것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밀접히 연관 되었다.⁶⁹) 이는 바로 문장이 질서와 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나라를 구하는 작용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영이다.

희녕 5년(1072) 소동파는 <감시승주시관(監試呈諸試官)>, <등망해루부오절(登望海樓賦五絕)>, <촉시관고교회작(催試官考較戲作)>, <8월17일복등망해루자하전편시일방출여아시관복류오수(八月十七日復登望海樓自和前篇是日榜出餘與試官復留五首)>⁷⁰)등 다섯 편의 시를 창작했다. 작품 속에서 소동파는 자신의 과거경력과 연결시켜 구양수가 가우2년에 지공거를 맡았을 때 가져온 문단풍기의 변화를 서술하고 현재 시험장의 허무하고 시부를 알게 보는 시험장풍기와 대비하면서 시험이 일대문풍에 주는 영향을 감탄하였다. 그리고 과거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감고들이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심심한 시간을 보냈던 상태를 묘사한 부분도 있다. 시험관들은 감고할 때 심심함을 느껴 수험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시간을

66) 당시 중국 산서성의 행정사무소를 말한다.

67) 산서성의 소속 구역의 지역명칭이다.

68) 孔凡礼撰,苏轼年谱[M].北京:中华书局, 1998年, 第 106 页.

69) 转引自孔凡礼撰,苏轼年谱[M].北京:中华书局, 2005年, 第 164 页.

70) 소동파가 중국, 항주시의 감시관으로 있었을 때 과거시험과 평가방법, 그리고 그때의 심정과 벼슬을 할 때의 느낌을 담은 자작글로 꾸며진 시집이다.

때움을 알 수 있다.⁷¹⁾ 소동파는 또한 <항주진사를 보내는 시서(送杭州進士詩序)>를 창작하고 그중 시험 감고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원풍(元豐)원년(1078), 소동파가 서주(徐州)에서 태수(太守)⁷²⁾를 맡았을 때 거자를 환송하는 록명연(鹿鳴宴)⁷³⁾에 참가하였다.

<서주록명연부시서(徐州鹿鳴宴賦詩敘)>에서 당시 의식의 정형을 묘술 하였다. “部刺史勸架，鄉先生在位，群賢畢集，逸民來會。載色載笑，有同于泮水；一觴一詠，無愧於陰山。（관료, 선생, 민중들이 모여 술잔을 들고 시부를 자랑하며 웃고 떠들어 대는 모습은 산천의 웅위함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뜻）”⁷⁴⁾ 이번 모임에는 소동파, 서환(舒煥), 진사도 등이 거자들과 시를 읊고 노래하며 마음껏 즐겼다.

원우(元祐)3년(1088), 소동파는 지공거로 있으면서 수험생과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 복무하였고 시험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칙에 대하여 정돈할 것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소동파는 <경의와 시부의 시험관을 차별하지 않다(乞不分差經義詩賦試官)>중에서 시험관의 진실한 학술과 문학수양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주명을 논하다(論特奏名)> <어사찰자이수(禦試劄子二首)>⁷⁵⁾ 중 소동파는 어사가 합격자를 발표할 때 모든 벼슬들이 전하를 모실 것을 제기하여 왕국의 다사(多士)⁷⁶⁾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을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성시성적발표후찰자3수(省試放榜後劄子三首)>에서 조정에서 시험장의 순찰병을 줄이고 상금과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정에서 수험생들에 대한 예의 있는 태도를 표시할 것을 제기했다. <大雪乞省試展限兼乞禦試不分初復考劄子>중에서 소동파는 수도(首都)⁷⁷⁾까지 거리가 비교적 멀고 큰 눈이 내려 규정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여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자들을 위하여 15일을 연장할 것을 황제에게 간청하였다. <공원찰자4수(貢院劄子四首)>중에서 소동파는 시험 중에 거자를 모욕하거나 부정행위 및 시험과정에 "問字(글을 묻다)" 등 현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전대조상삼시장(轉對條上三事狀)>중에서

71) (清) 冯应榴辑注, 黄任轍等校点. 苏轼诗集合注[M].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年, 第 353 页.

72) 고대중국의 지방관의 호칭.

73) 수험생들을 위한 환송식을 말한다. 보통 9월과 10월에 진행된다.

74) 苏轼著, 傅成, 穆侍标点. 苏轼全集[M].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857 页.

75) 찰자는 중국 고대에 공문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76) 나라에 인재가 넘쳐나는 흥성한 모습을 말한다.

77) 한 나라의 정부가 있는 도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

재차 부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하였다.

나. 소동파의 개혁건의와 개혁행위

1) 과거시험명제에 관하여

소동파는 가우(嘉祐)2년(1057)에 성시(省試)에 참가하고 진사에 급제한 후 창작한 <사추부시관계(謝秋賦試官啟)>에서 출제자와 출제형식 및 내용에 관해 비판하였다. 비록 이 작품에 시험관을 아첨하는 혐의가 있지만 매 한 글자마다 소동파가 과거시험명제에 대한 견해와 기대가 흐른다. 소동파는 과거시험의 명제는 반드시 학자의 능력을 고찰하고 선현의 고학을 전승하기도 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풍을 령도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자들이 분발하고 향상하는 것을 격려하는 공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⁷⁸⁾

소동파는 <奏乞增廣貢舉出題劄子>상주하여 <원우공거칙(元祐貢舉敕)>중 시부의 제목은 꼭 자사의서(子史之書)에서 선택해야하고 응시자가 공부한 내용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비판하였다.⁷⁹⁾ 그는 이러한 출제방식은 수험생들이 시험 내용을 쉽게 알아맞춤으로 시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시경> <춘추> <예기>등에 전공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불리한 국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동파는 <구경> <효경> <논어>에서 역사(史)와 자(子)의 사상들을 결합하고 <구경>과 <논어>를 치중하여 출제하고 출제하는 문헌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제목을 표기할 때 문제해석도 함께 할 것을 간청하였다.

2) 시험규칙의 조절에 관한 건의

소동파는 <사시책문(私試策問)>중에서 과거중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호명등녹(糊名騰錄)⁸⁰⁾의 취사의 방법을 제기하였고 현재 실행중인 기타 취사방법을 결부하여 "修廢官舉逸民(나쁜 관료를 폐지하고 좋은 서민을 선발하다)"⁸¹⁾의 형식으로 선

78)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594页.

79)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338页.

80) 호명은 수험생의 프로필을 적은부분에 커버를 씌워 숨기는 것을 말한다. 등녹은 수험생의 답안지를 감시관측에서 베껴서 제출하여 글자체로 수험생을 판단하는 부정행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거방법을 최적화하고 사인을 대하는 예의를 수정하여야만 천하의 인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동파는 <책략삼(策略三)>에서 당시의 취사방법은 비록 천하에 숨겨진 능력자를 모을 수 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인재를 찾아내는 방법 일뿐 천하를 다스리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였다.⁸²⁾

사마광과 소동파는 호명등녹을 취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사마광은 호명등녹을 폐지하면 무역조직의 경제적 참여와 뇌물의 흥행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덕행취사로 과거취사를 대체하면 과거제도의 토대를 흔들 것이고 과거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⁸³⁾ 학술의 높고 낮음은 문장으로 다 알아볼 수 없고 행위의 추악함은 짧은 시간의 표현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사람에 대한 고찰과 평가는 복잡하고 특수한 것이기에 찰거로 과거취사를 대체할 수 없다. 소동파는 반드시 “시험으로 법을 배우게 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학술을 연구하게 하는”⁸⁴⁾ 표준으로 취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박한 학술(質樸之學)을 제창하고 터무니없고 성실하지 못한 풍기를 반대하며 지식이 많은 자는 소박해야 하고 조금이나마 허풍한 자는 과면시켜야 학술풍기를 교정하고 충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호명등녹제도가 최종적으로 보류된 것은 소동파의 건의와 노력이 긍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 일부분 대신들은 찰거취사를 회복하여 과거취사를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덕행을 우선으로 본다는 찰거취사는 객관적인 평가 표준이 없기에 나라의 기둥으로 될 수 있는 실용적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안석은 비록 소동파의 관점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과거취사의 방법을 보류하였다.

왕안석은 또한 인재의 교육, 양성, 선발과 임용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왕안석은 먼저 과거시험의 내용을 개혁하여 학교와 과거를 통일시키고 양사와 취사의 공능을 점차적으로 과도하여 학교에 넘겨야한다고 하였다. 의론에 참여한 대신들 중에서 殿中丞, 直史館(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을 맡았던 소동파는 왕안석의 개혁건의를 반대하였다. 그는 <학교공거장을 논하다(議學校貢舉狀)>중에서 진정한 인재를 얻는 법(得人之道)은 통치자의 안목과 책임감 있는 정치와 관계되고 현재의 취

81)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789 页.

82)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796 页.

83) 司马光著,王根林点校.司马光奏议[M].太原:山西人民出版社, 1986年, 第 271 页.

84)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31 页.

사방법으로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취사의 개혁은 새로운 정치개혁시기에 이미 실험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과거시험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규범이 엄밀하지 않고 취사질량을 보장하지도 못했으며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지 않았으니 복고흥학은 합리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왕안석은 또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그는 인재가 결핍하고 학술이 통일적이지 못하며 사람들이 조정의 정치개혁에 대하여 많이 의논하는 원인은 조정이 도덕표준을 통일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덕표준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학교를 많이 세우고 공거법도 따라서 개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왕안석의 주장은 정이(程頤)⁸⁵⁾ 등 사람들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았고 변법의 배경 하에서 황제는 왕안석을 지지하여 학술의 복고흥행을 대거 지지하였다.

신종(神宗)은 범순인(範純仁)의 건의를 채택하여 회녕이후로 "오로법(五路法)"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정책을 문학교육이 비교적 낙후한 지역으로 기울이고 녹취비율을 조절하였다. 소동파는 원풍원년(1078)의 <서주상황제서(徐州上皇帝書)> 중에서 강남, 장강중부, 복건, 사천(吳, 楚, 閩, 蜀)지역의 인재뿐만 아니라 수도의 동쪽과 서쪽, 화북, 하북, 하동, 산서(京東, 西, 河北, 河東, 陝西)인재들도 많이 고려하고 채용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제기하였다.⁸⁶⁾ 소동파는 조정더러 오로(五路)⁸⁷⁾ 지사에게 별도로 사진의문(仕進之門)⁸⁸⁾을 열어주고 이후의 과거시험에서 오로지사에게 특수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를 건의하였다. 비록 오로법의 실행은 근본적으로 진사 및 남북인재에 대한 등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세에게 참고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소동파는 <재상황제서(再上皇帝書)>에서 진사(進士)를 취하지 않고 명경(明經)⁸⁹⁾만 취하는 폐단을 논술하였고 당시의 실제정황과 결부하여 천하의 반을 차지하는 진사가 20세 이후의 학습규율을 제시 하였고 시험방법을 만약 고친다면 학자들로 하여금 전에 배운 지식을 버리게 되어 인재선발에 유익한 점이 없게 된다고

85) 북송시기 유명한 철학자, 교육가

86)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53页.

87) 위줄에서 서술한 京東, 西, 河北, 河東, 陝西 지역을 말한다.

88)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벼슬의 길을 말한다.

89) 여기서 말하는 진사는 시부를 위주로 하는 시험을 말하고 명경은 왕안석의 개혁으로 시부를 취소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빈칸을 채우기와 단어 및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하였다. 또한 소동파는 진사시험과 명경시험은 인재선발을 위한 것이지 인재의 나옴과 못함은 어느 시험방법으로 판단하느냐에 있지 않기에 황제더러 용사자(用事者)⁹⁰⁾의 건의를 듣지 말고 명경만 취하여 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건의하였다.⁹¹⁾

원우3년 소동파는 노정이 비교적 멀고 큰 눈이 내려 규정한 시간 내에 경사로 도착하지 못하여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자들을 위하여 15일을 연장할 것을 황제에게 간청하였다. 이 건의를 기반으로 소동파는 또한 어시(禦試)⁹²⁾에 초복시(初複試)⁹³⁾를 추가 하지 말고 현재의 시험의 호명등녹으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같은 목적으로 진행했던 초복시로 수험생들에 대한 재차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고 지출을 경감한다고 하였다.

소동파는 <공원찰자사수(貢院劄子四首)>를 황제에게 상서하여 이번 공거 중에서 발생한 일과 자신의 관점을 진술하였다. 순찰병장 정영송(鄭永崇)을 이번 공거에서 행위가 부당하고 수험생을 모욕한 이유로 체포하였고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정영송을 대체하여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를 황제에게 청구하였다. 내신 진조(陳慥)는 의심스러운 수험생을 체포하고 병사들더러 그 자의 이름을 높게 외치게 하였는데, 이 행위는 기타 거인의 상태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거인을 모욕하고 사자들의 마음과 자존심(士心)을 상하게 하여 소동파는 이러한 작법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동파가 거자에 대한 관심과 관대함을 체현한다. 소동파는 또한 시험 중의 수험생들의 문자(問字)는 전의(傳義)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되고 수험생과 시험제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처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특주명(特奏名)⁹⁴⁾은 관료부패를 조성하였고 열에서 아홉 명은 벼슬에 대한 책임감이 없음을 인식하였기에 직접 관리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인에게 특정된 시험을 치르게 하여 그중에서 진짜 유능하나 운이 부족했던 사자를 관리로 선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학과 장사(長史)⁹⁵⁾ 등 관직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90) 왕안석을 포함한 행정인원들을 말한다.

91)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45页.

92) 황제가 직접 감고하는 황궁에서 진행되는 시험.

93)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시를 재차 진행하여 취사하는 법을 말한다. 초복시는 그때의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94) 송대에만 있었던 과거시험에서 여러번 실패한 사자들을 위해 관직을 부여하는 특수한 법이다.

소동파는 <성시성적발표후찰자3수(省試放榜後劄子三首)>중에서 시험감독에 참여한 순찰병이 거자가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거한 장려를 주는데 관하여 일부 사병들은 상금을 받기 위해 수험생에게 누명을 씌우는 현상은 나라를 훼손하고 거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동파는 조정에서 시험장의 순찰병을 줄이고 장려를 줄이고 거자에게 누명을 쓰게 하는 병사에게는 중한 벌을 내리는 것으로 조정에서 거자를 예우(禮遇)⁹⁶⁾하는 태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분경취사(分經取士)의 정책을 실행하고 일경에서 합격하는 자가 적을 때에는 사리가 얇은 시험지를 취하고 우수한 자가 많을 때에는 사리가 긴 자를 도태하는 작법은 공평한 평가 표준이 아니며 천하의 현재를 얻기에 부족하여⁹⁷⁾ 시부를 겸용하고 경의만 중시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우열을 따져서 인재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분경취사에 배합하기 위하여 과거시험의 경의, 시부의 시험관을 갈라서 파견하였다. 소동파의 <乞不分差經義詩賦試官(시부 시험관을 따로 파견할데 관한 건의)>중에서 시험관은 반드시 유사학자(有詞學者)⁹⁸⁾여야 하고 만약 적합한 사람을 구하였다면 <역(易)>을 공부한 사람도 <춘추(春秋)>를 물어볼 수 있고 적합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본과출신 이었어도 착오를 피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⁹⁹⁾ 시험관을 선발 할 때 출신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한 학술과 문학수양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문에 능한 사람을 선택하고 경의와 시부를 가르치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경이시부를 잘 장악한 감시관들을 채용하는 소동파의 건의를 채납하였고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다.¹⁰⁰⁾ 시험관의 수준은 과거의 진행과 수험생들의 상태 및 인재의 선발에 영향을 미쳤다.

소동파는 <어시찰자이수(禦試劄子二首)>에서 합격자를 발표할 때 조상에 대한 존경과 법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모든 관료들은 대전에 모여서 대기하여 왕국의 넘쳐나는 인재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뽑내고 드러낼 것을 주장하였다. 소동파는 전시(殿試)에서 거자를 탈락시키지 않는 법은 폐단이 너무 많이 존재

95) 현재의 비서와 비슷한 관직을 말한다.

96) 수험생들에 대한 예절이 바른 대접을 말한다.

97)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89页.

98) 시험내용에 능숙하고 상당한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9)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89页.

100) (宋)李焘撰.续资治通鉴长编[M].卷四一一,哲宗元祐三年,北京:中华书局,1995年,第10011页.

하여 합격한 자를 빼고 나머지 거자들에 대한 선택은 점수와 정원(定員)에 근거하여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속에서의 우수한 자를 선택하려 하여야만 과거시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¹⁾

3) 과거시험내용에 관한 개혁방법

왕안석의 추진으로 희녕(熙寧)2년(1069), 송신종(宋神宗)은 과거시험제도를 개혁하여 시부를 폐지하고, 첩경(帖經), 묵의(墨義), 경의, 책론으로 취사한다고 반포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일부분 대신들의 지지를 가졌다. 예하면 한림학사 한유(韓維)는 시부를 폐지하고, 대경을 배우게 하고 대의(大義)와 십도(十道)¹⁰²⁾를 질문하여 해석하도록 하며 전부를 암기하는 법을 제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³⁾ 그리고 러공저(呂公著)는 시부를 폐지하고 경의로 대체하여 먼저 본경, 대의, 십도를 시험하고 다음 책론을 시험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⁴⁾

하지만 과거개혁 소동파는 다른 관점을 제기하였다. 소동파는 <학교공거장을 논하다(議學校貢舉狀)>에서 책론만 언급하고 시부를 취소하는 것, 첩경, 묵의를 취소하고 대의만 시험하는 결점을 지적하였다. 유용하다와 무용하다로 시부와 경의취사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당조로부터 지금까지 시부로 대신으로 된 자가 수두룩한여 천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리."¹⁰⁵⁾라고 하면서 시부를 폐지 하지 말아야 하고 경의로만 취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부의 학습방법은 규범화 되었으므로 인재의 선발과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더욱 이롭다고 하였다. 그전의 <사왕내한계(謝王內翰啟)>과 <사매룡도서(謝梅龍圖書)>중에서 소동파는 시로서 의지를 보고 책략으로서 재능을 짐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⁶⁾ 하지만 공거개혁의 법은 왕안석희녕변법중의 주요한 구성부분이고 또한 신종황제는 왕안석의 주장에 더 기울어졌기에 최종으로 시부를 폐지하고 경의로 취사하였다.

101)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91 页.

102) 유가사상에서 제창하는 윤리도덕의 열 가지를 말한다.

103) (元) 马端临撰,四库家藏文献通考 5[M].济南:山东画报出版社, 2004年, 第 82 页.

104) 丁守和等主编.中国历代奏议大典[M].哈尔滨:哈尔滨出版社, 1994年, 第 163 页.

105)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130 页.

106)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 1596 页.

원우2년(1087)로부터 시부취사가 회복된 후 시부에 열중하여 공부하는 거자가 점차 늘어났다. 예하면 원우(元祐)4년(1089) 량도(梁燾)¹⁰⁷⁾는 "진사들은 열에서 일곱 명은 시부를 공부하고 심지어 일부 주(州)에는 경의를 공부하는 자가 거의 없다."¹⁰⁸⁾고 하였다. <송사·선거지(宋史·选举志)>에는 원우(元祐)4년(1089), "시부를 회복한 다음부터 경의를 학습하는 자는 열에서 두세 명도 없다."¹⁰⁹⁾고 기재한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에서 관리를 하는 소동파도 친히 체험하였다. 그는 사천지역의 진사 중에서 열에서 아홉 명 정도는 시부를 학습하였고 강남 복건지역의 진사들은 너도나도 시부를 창작하면서 선배들의 의지를 따랐으며 경의에만 몰두하는 것을 치욕으로 느꼈다고 지적하였다. 시부로 바꾸어 학습하는 사자들이 우세를 차지하는 정황 하에서 소동파는 "금후로 시부를 학습한 자들만 과거에 참가하여 진사급제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하였다.¹¹⁰⁾ 후에 조정에서는 명을 내렸는데 경의와 시부취사를 함께 채용하는 것으로 소동파의 건의를 채납하지 않았다.

4) 엄입사지원(严入仕之源)에 관한 취사건의

소동파는 북송의 관제는 진사, 명경, 제과(諸科)¹¹¹⁾외 은음수관(恩蔭授官)¹¹²⁾ 및 특주명(特奏名)이 있으므로 하여 무능한 용관이 조정을 망치고 인재양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사지원과 크나큰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¹¹³⁾

소동파는 원우(元祐)원년(1086) <용관을 논하다(論冗官劄子)>, 원우(元祐)3년(1088) <轉對條上三事狀>중에서 입사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용관(冗官)의 폐단을 방지하고 해결할 것을 희망했다. 그는 전시취사제도(殿試取士制度)를 엄격히 할 것을 청구하고 특주명 진사에게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을 정밀하게 하여 열 명 내지

107) 북송시기 인재 선발에 일생을 바친 철종황제의 부재상이었다. 신구당과의 분쟁에서 피해를 받아 유배에서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인물이다.

108) (宋) 李焘撰.续资治通鉴长编[M].卷四百二十九,哲宗元祐四年,北京:中华书局,1995年,第10377页.

109) (元) 脱脱等撰.宋史·选举志[M].卷一百五十五,选举一科目上,北京:中华书局,1990年,第3621页.

110)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212页.

111) 북송과거에서 모든 과목을 말한다.

112) 중국 고대에 관료들의 후손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113)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597页.

스무 명의 학문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리가 우세인 사람은 즉시 임용하고.....
폐단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¹⁴⁾

관직을 하사받은 자도 시험에 참가하되 문관은 책론을 시험치고 무관은 기사법률을 시험 치며 근 몇 년간의 은음수관의 인수에 근거하여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연령제한도 설치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관리를 맡게 하여 사람들은 학문을 중시하게 되어 문관은 경술시무(經術時務)¹¹⁵⁾에 능하게 되고 무관은 기사법률에 능하게 되고 진사들이 수고스레 공부했으나 성과가 없으면 평민백성으로 돌아가더라도 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¹¹⁶⁾

소동파는 "오늘의 남성(중국 운남지역)에서는 벌써 열 명이 승진하였는데...전부 다 일갑(一甲)¹¹⁷⁾이다."¹¹⁸⁾라고 하면서 거자의 승진의 법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동파는 현행의 거자승진법이 이미 등급 승진의 작용을 잃었고 천하의 사자들은 승진으로 영예를 느끼지 못하고 성군한테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시출낙(殿試黜落)¹¹⁹⁾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건의 하였다.

인종가우(仁宗嘉祐)2년부터 전시에 참가한 사자들은 출낙을 면하였고 철종이 황위를 계승할 때까지 출낙제도는 북송중후기의 용관용원을 가중화하였다. 소동파의 <放榜後論貢舉合行事件>에서 "앞으로는 전시에서 합격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출낙하여야 하거나 점수로 명약을 제한하여 취사해야 한다."¹²⁰⁾고 하면서 출낙자 비율을 높여 유능자를 세밀하게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다.

원우(元祐)4년, 소동파는 시부, 경의에 대한 평균분배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와 경의 응시자 인수에 근거하여 적당한 비례로서 분배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또한 문장에서는 거인들의 학습취향에 대해 논술하였고 "전문 경의를 학습하는 자는 열에서 두세 명도 안 되고 주학생(州學)¹²¹⁾들을 보면 대다수 시부를 학습한다."¹²²⁾고 하면서 경의취사가 가져온 폐단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였다.

114) (宋) 苏轼著,李之亮笺注.苏轼文集编年笺注[M].诗词附 4,成都:巴蜀书社,2011年,第37页.

115)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경술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무능력을 말한다.

116)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31页.

117) 과거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1, 2, 3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118)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91页.

119) 전시에서 낙방한 자의 시험자격을 취소하는 법을 말한다.

120)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191页.

121) 주급학교 출신의 사자들을 말한다.

122)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212页.

조정에서는 소동파의 건의를 채납하여 경의로서 선비를 채용하는 비례를 줄였다. 그는 조정의 정책이 일목요연(一目了然)¹²³⁾해야 학자들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건의 하였으나 사실 조정에서는 단지 시부를 배우지 않은 거인들한테 시간을 주었을 뿐 소동파의 건의를 채납하지 않았다.

소동파는 역사발전의 안목으로 과거제도개혁을 보았고 과거제도에 대한 깊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취사표준을 결정하는 경쟁에서 소동파가 도덕교육과 과거시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아 낼 수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북송과거제도의 개혁과 과거제도의 우세와 폐단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과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제경험과 합리적인 과거시험의 규칙을 결합하여 인재를 선발하기에 노력하였다. 그의 정치생활에서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을 견지하였고 고대의 인재선발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려면 소동파가 제기한 개혁사상이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채납되지 않았고 제도가 실시되지도 못했는바 북송과거제도개혁이 실질적으로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당시 소동파의 문장과 어구가 너무나 날카로웠고 이익을 중시하는 과거시험풍기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너무 직접적 이었기에 많은 권력자들의 환심을 얻지 못한데 있다. 심지어 <진사의 어시 대책(擬進士對禦試策)>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임금에 인재에 대한 채용의 과실을 지적하였는가 하면 <임금에게 드리는 문서>에서도 법과 천하를 너무 관대하게 다스리고 주장이 선명하지 않다는 등 황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그의 고초가 많은 정치생활과 만년의 비참한 결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소동파는 통치자와 권력자들과 통일된 견해를 갖지 않았고 항상 의견을 갖고 있었다. 왕안석이 재상으로 있을 때 소동파는 그의 정치의견을 납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인격을 의심하는 문서를 제출한바가 있다.

신종도 왕안석의 변법을 옹호했을 때 소동파가 왕안석과의 악연은 필연적으로 좋은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은 뻔 한 일이다. 원우(元祐)년에 사마광이 다시 임용되었을 때 소동파는 또 반대하는 입장 이었고 소동파의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의견도 대부분 채납되지 못했다. 다만 원우3년째 되는 해 소동파가 자공거로 있을시 시

123) 한번 보고도 알 수 있거나 한 눈에 안겨오는 듯한 느낌을 말한다.

협과정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건의가 통치자에 의해 받아들였고 실행 되었다.

당시 권력자들의 개혁의견과 다른 소동파의 주장들이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가 선보인 이성적인 판단과 비판적 사상 및 투쟁 정신은 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는 역사발전변화의 안목으로 치국취재(治國取材)¹²⁴⁾와 도덕교육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당시 개혁의 열풍 속에서는 탁월한 인식이었다.

124) 천하를 다스리고 인재를 선발

IV. 소동파가 북송 과거 시험장 문풍에 대한 영향

과거 시험장 문풍은 과거제도에 의해 산생되었고 과거제도의 조정과 개혁은 과거 시험장 문풍의 발전방향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 내에 과거에 합격된 작문은 항상 유생들의 참고법문이다. 유생들은 과거작문의 작문방법을 배워야 할뿐만 아니라 작자의 문풍의 영향도 받는다. 특별히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시험관의 고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문장은 더욱더 그러하다. 소동파는 과거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등(三等)¹²⁵⁾으로 합격되었고 그의 시험장 작문은 문단의 맹주인 구양수의 칭찬도 받았으며 구양수가 북송문단풍기를 개혁함에 있어서의 예리한 칼날이기도 하였다. 자연히 유생들은 소동파의 글을 많이 추종하고 모방하였다.

소동파가 북송 과거 시험장 문풍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그가 작문방법에 대하여 제기한 뛰어난 견해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가 창작한 자기의 주장을 실천한 대량의 모범적인 문장에서 나타난다. 하여 그는 북송중후기 문단의 으뜸가는 문학자, 교육가로 되었다. 소동파가 북송 과거 시험장 문풍에 대한 영향은 주요하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 되었는데 첫째는 소동파가 진사에 급제하여 한 번에 천하에 명성을 날리고 소동파의 시와 문장들이 사람들마다 전하여 베끼고 학습하였고 두 번째는 소동파가 소씨 문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이고 세 번째는 소동파가 과거에 급제하여 그 시대의 유생들이 그의 취향으로 문장을 짓고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랐다.

1. 과거에 급제한 후에 소동파의 영향

과거시험의 성공과 실패는 유생들의 운명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귀영화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유생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지름길을 선택하기도 하였는데 과거에 급제한 유생들의 문장사로를 참고하고 문장풍격을 학습하여 시험관의 호감을 얻기도 하였다. 각종 시문집, 평론집, 시문작품연구 등이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나오게 되었고 지금의 우수한 작문선, 우수한 필기처럼 광대한 유생들의 수요를 만

125) 송대 과거시험의 최우수등급이다. 송대 역사상 삼등은 소동파와 오육(吳育) 두 사람 뿐이다.

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사회와 과거 시험장 문풍에도 큰 영향을 주어 심지어 좌우지 할 수 있었다.¹²⁶⁾

인종가우(仁宗嘉祐)2년 (1057)에 진사들은 서로 배우는 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문장들이 난해하고 까다로웠으며 구양수(歐陽修)는 과거시험 때문임을 알고 그것을 우환으로 보고 마음이 아파하였다고 한다.¹²⁷⁾ 구양수는 괴상한 태학체(太學體)를 버리고 언어가 평범하고 리치가 있는 문장을 쓴 유생들을 녹취하여 북송가우 이후의 문학적 풍기에 영향 주었다. 조설지(晁說之)는 “가우시기의 책론이 중시 받으니 유생들은 책론에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¹²⁸⁾ 이것은 구양수의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묘사한 것이고 책론이 이미 그 시기의 새롭게 유행하는 문체로 되었음을 설명한다. 소동파의 과거문장은 그 시기 문단의 태두인 구양수의 큰 칭찬을 받았다. <곡유구문(曲洧舊聞)> 제8권에서 “동파의 시문은 歐公(구양수)의 온종일 기쁨을 자아냈다.”¹²⁹⁾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소동파의 문장이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는 것을 묘사하고 유생들이 모방하는 새로운 본보기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 북송 시기에 인쇄술이 발전하였기에 “생전에 그의 시문은 많이 판각 되었고 널리 전해지었는데 중국역사상 이런 사람은 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¹³⁰⁾ 소동파의 문장이 얼마나 널리 전해진데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많은 저서에서 다루었다. <원봉유고(元豐類稿)> 제41권에서 “세 사람의 문장이 널리 알렸는데 읽어본 사람은 모두 놀라고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흠모하고 따라하였다. 수도사 바다가의 변경으로 옮겨간 후 학사대부들은 이름은 몰라도 그의 책은 꼭 가지고 있었다.”¹³¹⁾고 하였다. 주변의 <곡유구문(曲洧舊聞)> 제8권에서 “..... 조정에서 금지하려고 상금 80만까지 주면서 시도하였지만 금지할수록 더욱더 전파 되었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찬양하였는데 심지어 사대부들이 시를 읊지 못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¹³²⁾고 하였다. 즉 소동파의 문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여도 선비들이 소동파의 문장에 대한 흠모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126) 岳珂撰·愧郈录[M].卷九,南京:江苏广陵古籍刻印出版社, 1995年,第378页.

127) (元) 脱脱等撰·宋史·选举志[M].卷一百五十五,选举一科目上,北京:中华书局, 1990年,第3614页.

128) (宋) 晁说之撰·景迂生集[M].卷一,四库全书第1118册 集部 57 别集类,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

129) 孔凡礼撰·苏轼年谱[M].北京:中华书局,1998年,第99页.

130) 曾枣庄·苏轼研究史[M].南京:江苏教育出版社, 2001年,第18页.

131) 曾巩散文全集[M].北京:今日中国出版社, 1996年,第449页.

132) (宋) 朱弁撰,孔凡礼点校·曲洧旧闻[M].北京:中华书局, 2002年,第204页.

더 숭배하고 심지어 소동파의 시를 읽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 이런 논술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를 반영하는데 바로 소동파의 시는 천하에 성행하였고 문인들이 다투어 학습하고 전승 되었다.

악가(岳柯)는 <괴담록(愧郟錄)>에서 과거시험의 각종 참고서적들이 많았으나 이런 책들은 시간성 유효기간이 있어 인차 도태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보존된 것은 비교적 적다고 하였다.¹³³⁾ 우리는 남송시기의 사람들이 쓴 이런 서적들에서 소동파의 문장이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남송시기의 러본중(呂本中)은 <동몽시훈(童蒙詩訓)>중 소동파의 책을 익숙히 읽혀 굳세고 도도하며 올바른 기개를 키워야만 훗날에 문장을 지을 때 막힘이 없을 것이고 인색한 자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남송시기의 러조겸(呂祖謙)이 쓴 과거시험서적인 <고문관건(古文關鍵)>에서는 모두 60여 편의 문장이 수록 되었는데 그중에는 소동파의 문장이 16편이나 포함 되어 있다. 록유(陸遊)의 <로학암필기(老學庵筆記)>중 “건염(建炎)¹³⁴⁾ 이래 수많은 학자들이 갑자기 소씨의 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촉생(蜀生)¹³⁵⁾들이 각별하였는데 소씨의 문장을 잘 배운 자는 양고기를 먹고 아니면 야채국물만 먹어야 된다는 말도 있었다.¹³⁶⁾ 여기서 말하는 소씨 문장이 바로 소동파가 시험에서의 정치적 산문을 포함한 작품들을 말한다. 그리고 소씨 육군자의 문장을 함께 <소문육군자문수(蘇門六君子文粹)>에 편찬하여 학습할 때의 본보기로 삼았다. 소동파의 시문이 유생들의 과거 시험장 문풍에 대한 거대한 영향은 북송중후기로부터 남송시기 및 그 후세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다른 한 방면으로 소동파문풍이 그 시기에 얼마나 광범하게 성행되었고 그 영향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반영하였다.

2. 소동파의 제자와 문인들에 대한 교육활동

송나라 학자는 거의 다 저명한 교육가이다.¹³⁷⁾ 소동파도 예외가 아니다. <소식문집(蘇軾文集)>, <동파역전(東坡易傳)> 등 저서에는 모두 그가 교육에 대한 깊은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문인들과의 교체과정에서 소동파는 자신의 교

133) 岳珂撰, 愧郟錄[M]. 卷九, 南京: 江苏广陵古籍刻印出版社, 1995年, 第378页.

134) 건염은 송고종의 년호다.

135) 중국사천(四川)지역 학생들을 말한다.

136) (宋) 陆游撰, 李剑雄, 刘德权点校, 老学庵笔记[M]. 北京: 中华书局, 1979年, 第100页.

137) 毛礼锐, 沈灌群主编, 中国教育通史[M]. 第3卷, 济南: 山东教育出版社, 1987年, 第14页.

육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교육은 문화에 대하여 선택, 전과, 보존, 비평, 창조 등 공능을 가지고 있다. 시험도 어느 정도에서 교육의 이런 문화적 공능을 발휘하고 있다. “십년동안 고생스럽게 공부하여도 묻는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였더니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 라는 말과 같이 과거시험의 성공이 가져다준 거대한 이익은 과거에 급제한 거인들로 하여금 시문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였고 학습내용은 과거시험내용을 둘러싸서 제정하였으며 성공함에 있어서의 지름길은 바로 과거시험에 성공한 사람들의 문장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험은 문화적 선택과 전과공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인들 상호간의 영향과 스승한테서 받는 교육 및 역사적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구양수 다음의 문단의 맹주로서 소동파는 후배를 양성하고 문단의 후계자를 배양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얼마나 하찮은 문장이든 그의 제자가 옳든 아니든 모두 성의를 다하여 가르쳤다. 소동파는 독립적이고 학식이 깊고 재능이 많은 인격적 매력으로 수많은 청년준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선발하고 상을 주었다. “사학사(四學士)”, “육군자(六君子)”, “후사학사(後四學士)”¹³⁸⁾ 들과의 사생관계가 바로 구체적인 사례이고 그 후 오랫동안 미담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관계가 친밀한 사생사이였고 또 호상 진심으로 탄복하는 진실한 벗 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학사”, 육군자”, “후사학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인집단을 둘러싸고 있다. 원우당인비(元祐黨人碑)와 호응린(胡應麟)의 <시수(詩藪)>중의 기재를 결합해보고 양승관의 <소동파와 소문문인집단의 형성(蘇軾與蘇門文人集團的形成)>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소문문인집단은 약 50명좌우가 있었다. 이외에 그 집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소동파에 대한 경모를 품고 그의 사람 됨됨이와 문장을 학습하는 유생들이 적지 않았다. 조보지(晁補之)는 <칠술(七述)>에서 소동파가 그때당시 선비들의 숭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묘사하였다. 장뢰(張耒)의 <송리단숙간정주서(送李端叔赴定州序)>에서도 유생들이 소동파에 대한 경모를 기술하였다. 이들은 예외가 없이 소동파의 인격적 매력과 시문 풍격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소동파의 뒤를 이어 북송중후기문단과 정단에서 이름 있는 인물로 되기도 하였다.

138) 소동파의 제자 중에서 출중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다.

소동파의 일생에서 정치적으로도는 평탄하지 않았는데 임하였던 직무는 곳곳에 모두 있었다. 문생과의 교제는 주요하게 종이와 필로 전하였는데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은 후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경로로 되었다. 소문문인은 대부분 문장으로 소동파와 교류하였는데 편지에는 주요하게 소동파에 대한 존경과 소동파의 시문에 대한 찬양을 표현하였다. <소동파전집(蘇軾全集)>중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삼백 여 편의 편지의 일부분은 소동파와 그 문인들의 거래를 기재하였다. 이 편지들을 보면 소동파는 후배를 관심하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가르치는 스승 이였음을 알 수 있다. 후배유생들에게 문장을 배워주고 사람 됨됨이를 많이 가르치고 언어를 보면 어른으로서의 격려와 간절한 기대,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배려로 가득 찼다.

왕상(王庠)은 <동파선생님과 편지(與東坡先生手書)>에서 소동파의 문장은 맹자의 정수(精髓), 사마천의 기이함(奇異), 순자와 다른 자유분방함, 양웅의 글 보다 통속적인 특징을 모두 겸비하였다고 칭찬하였고 소동파 및 그 문인이 문풍을 개변함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였다.¹³⁹⁾

소동파는 왕상에게 쓰는 답장 <여왕상서(與王庠書)>에서 왕상의 저술문자에 대하여 타당한 평가를 하였는데 “선조들의 풍격이 있는데 대략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 하였다.”고 하였다.¹⁴⁰⁾ 그는 지금 시험장의 형식문자는 빈말이 많고 실용가치가 떨어지며 시험관도 수많은 비슷한 문장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왕상이 자기의 창작풍격을 견지하기를 격려했다. 심작철(沈作喆)의 <우간(寓簡)> 제8권에서 “왕상이 과거시험을 볼 때 소동파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소동파는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하였다. 前輩教人讀書如此，此其膚淺求速成，苟簡無根坻者所能哉！此書今集中不載，學者當書紳，故表而出之。(균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용을 빨리 장악하려 하지말라)”¹⁴¹⁾고 썼다. 이 논술은 소동파가 후배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정확하게 개괄하였고 여기로부터 소동파가 선생님으로서 모범적인 학자풍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문사학사중 한명인 진관(秦觀)은 <황루부(黃樓賦)>로 소동파를 만났는데 소동파는 진관의 문학적인 재능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진관은 어렸을 때부터

139) 曾枣庄著.宋文通论[M].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8年,第204页.

140)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第1655页.

141) 转引自曾枣庄主编:苏文汇评[M].成都:四川文艺出版社, 2000年,第560页.

관리로 되어 학문을 닦았는데 언어가 화려하고 의론이 독특하다.”¹⁴²⁾고 하였다. 소동파는 진관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많은 벗에게 추천해줬고 벼슬길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방조해주었다. 소동파는 과거시험에서 떨어진 진관을 위로하였고 “아름다운 글들을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 할 뿐이다.”라고 격려하면서 그가 과거에 급제하려고 자신의 풍격을 잃지 말 것을 권고 하였다.¹⁴³⁾ 편지에서 소동파는 아버지처럼 진관더러 책을 많이 쓰라고 권유하고 과거시험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였으며 그의 논술이 언젠가는 크게 쓰일 거라고 확신하고 계속하여 책론을 쓸 것을 독촉하였다. 원우초기, 소동파는 재능이 있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진관을 조정에 추천하였는데 립서는 진관의 책론이 “뜻이 깊고 심오하며 문장이 뜻을 빠뜨린 부분도 없으며 마치 소씨의 의론과 흡사하다.”고 하였다.¹⁴⁴⁾ 진관의 논문은 사회적작용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장식하거나 용도가 없는 문장을 반대하였다. “지나치게 장식만 하고 언어가 화려하기만 하면 말재주를 부려 환심을 사는 것이지 용도가 별로 없는 것이 이런 문장의 폐단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동파가 나라를 구하는 문장을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다.

황정견(黃庭堅)도 사학사중의 한명이고 또 그중에서 성과가 제일 높은 분이다. 황정견은 문장과 시가(詩歌)는 반드시 사회적작용이 있어야 하고 꼭 유용한 문장을 쓸 것을 주장하였고¹⁴⁵⁾ <여왕관부서(與王觀復書)>에서 소동파가 그에 대한 간절한 지도를 회억하며 “스승한테 문장 짓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예기(禮記)와 단궁(檀弓)을 익숙히 읽으면 알 수 있다.”¹⁴⁶⁾고 하였다. 황정견은 한유, 구양수, 소동파 등은 건안(建安)¹⁴⁷⁾이래 특이한 언어를 만드는 풍기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문장들은 건안이래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문풍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폐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허나 구양수, 왕개보, 소자첨, 진소유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정견은 소동파의 시대를 비웃고 풍자하는 문장풍격을 반대하였는데 “소동파의 문장은 너무도 미묘하지만 그 단점은 풍자하는 것인데 절대 그것을 따라 배우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142) 苏轼著,傅成,穆侍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 年, 第 1280 页.

143) 苏轼著,傅成,穆侍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 年, 第 1735-1738 页.

144) 周义敢,周雷编.秦观资料汇编[M].北京:中华书局, 2006 年, 第 641 页.

145) (宋) 黄庭坚著,郑永晓整理.黄庭坚全集[M].南昌:江西人民出版社, 2011 年, 第 412 页.

146) 四川大学中文系唐宋文学研究室编.苏轼资料汇编[M].北京:中华书局, 1994 年, 第 96 页.

147) 중국 삼국시기를 말한다.

소동파는 리치(李廌)의 재능을 알아보고 중용하였는데 그의 문장을 “필과 먹물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풍사를 일으킬 정도의 기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재능은 “만인적(萬人敵)”이라 하였다.¹⁴⁸⁾ 소동파는 그한테 쓴 18편의 편지에서 그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늘 그의 일상생활을 관심하면서 “빈곤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면 포부와 사업이 모두 잘된다.”고 하였고 그가 배움에 게을리 하지 않으며 걸치레를 없애고 소박하게 살며 덕과 재능을 모두 겸비한 예의군자로 되기를 바라왔다.¹⁴⁹⁾

조보지는 소동파의 친구 황단언의 조카였는데 소동파는 총명하고 민첩하며 기억력이 뛰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문장 짓기에 재주가 있었다고 평가 했다.¹⁵⁰⁾ 스무 살에 소동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시문은 소동파의 세심한 지도아래 문장풍격이 소동파와 아주 비슷하였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제154권에서 “고문은 규모가 크고 기세가 드넓은데 소동파 부자(父子)와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조보지의 동족형제인 조재지(晁載之)도 소동파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고 주이(朱弁)의 <구위구문(曲洧舊聞)>제8장에 기재된 것에서도 조재지가 소동파의 지도를 받은 후 문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로직이수(與魯直二首)>에서도 소동파가 조보지의 글에 대한 평가가 있다. 재능이 출중한 젊은이의 실제 마음을 고려한 완곡하고 따스한 가르침은 소동파가 선생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주이(朱弁) 본인 또한 소동파를 공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다. 하지만 조재지의 글이 크나큰 진보를 한데는 은근히 소동파의 지도만이 아니었음을 이 문구에서 볼 수 있으며 소동파의 공로를 과대하였다는 의심스런 면도 찾아볼 수 있다.

진사도(陳師道)의 정론산문창작은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창작수법에서나 창작내용, 언어표현수법에서 소동파의 그림자를 뚜렷이 볼 수 있다. 특히 <공수론(攻守論)>에서 비유법, 고문 사용법, 인용법 등 수단으로 형상화한 설명을 하였고 논리적 추리 방법으로 진일보로 상세히 논술하였으며 그 결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중<리단백숙에 답하다>에서 서술한곳은”마치도 또 한명의 소동파인 것 같다”¹⁵¹⁾고 서술하였다. 원우(元祐)2년(1087)소동파와 손각(孫覺)은<진사도

148) 傅璇琮,张剑主编.宋才子传笺证[M].沈阳:辽海出版社, 2011年,第320页.

149) 苏轼著,傅成,穆传标点.苏轼全集[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年,第1766—1770页.

150) 四川大学中文系唐宋文学研究室编.苏轼资料汇编[M].北京:中华书局, 1994年,第148页.

151) (宋)王应麟著,(清)翁元圻注,栾保群等校点.困学纪闻[M].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年,第1963页.

추천장(薦布衣陳師道狀)>을 상주하여 진사도는 서주주학 교수로 임명받았다. 장뢰(張耒)는 <논문시(論文詩)>에서 “리문은 맞춤하여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며 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거세야 한다.”¹⁵²⁾는 이 관점과 용어는 소동파의 시문과 일맥상통하다. 당경(唐庚)의 시문은 소동파의 시문을 닮았고 인생경력 또한 소동파와 비슷하여 “어린 동파”라고 불리고 있었다.

소동파는 조령치(趙令時)의 됴됨이와 문예 방면의 재능을 더없이 찬양하여 <조덕림자설(趙德麟字說)>이라는 책을 썼으며 “됨됨이가 좋고 박식하고 견결하며 정치에 민감한 인물은 이 도령뿐이다”¹⁵³⁾라는 평가를 하였다. 원우(元祐)4년 소동파가 항주지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조령치는 직접 항주로 와서 소동파를 방문하였다. 소동파가 세 번 씩이나 상서를 올려 추천을 하였지만 큰 결과는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 봉희(熙豐)년간 소동파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왔으며 리소기(李昭玘)도 그중 한명이다. 원우(元祐)원년 소기는 황전견, 조보지등 동문과 함께 소동파가 시험관으로 하는 시험에 참가를 했으며 순리롭게 셋은 통과 되어 비서로 발령 받았다. 비록 소동파 혼자 힘으로는 그들의 시험결과를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그 작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소씨 문인들도 소동파의 영향과 지도 아래에서 북송후기문단의 중견(中堅)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시문학 창작, 논학논도(論學論道)는 각종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북송후기의 문학풍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3. 주맹(主盟)문단에서 소동파의 작용

소동파는 창작능력이 출중할뿐더러 신분과 명성이 또한 높아서 그로 하여금 충분한 호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하였다. 정치적지위의 상승, 시험주관, 인재등용 등 국가문교대전사업을 하면서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가우(嘉祐)2년 그는 구양수한테서 예부(禮部)의 인재등용 기회를 갖게 되면서 기괴한 문학풍기를 전변시키고 알기 쉽고 유창한 특징을 가진 북송문학풍격을 형성하였다. 소동파는 구양수가 직접 선정한 문단의 계승자로서 선생을 본보기로 예부의 인재등용 시기를 이용하여 뜻이 맞는 소씨 문인들과 함께 함으로 하여 진정으로 훌륭한

152) (宋) 王应麟著, (清) 翁元圻注, 栾保群等校点. 困学纪闻[M].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年, 第1885页.

153) 苏轼著, 傅成, 穆传标点. 苏轼全集[M].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第866页.

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다른 한 방면, 천하의 모든 문인들은 소동파의 사람 됨됨이, 그의 문학, 정치에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소동파의 문학풍격을 학습하는 것은 사족 자제들이 소동파에 대한 일종의 경모였다. 송인봉구만(宋人朋九萬)은 <동파오태시안(東坡烏台詩案)>에서 동파의 문자는 서로 경쟁하면서 전해졌고 그것을 전파한 사람들도 수두룩했다고 하였다.¹⁵⁴⁾ 명인 이소(明人李紹)는 <중간소문중공문집서(重刊蘇文忠公文集序)>에서 “이 문장은 사해에 이미 알려졌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¹⁵⁵⁾고 하였다. 여기에서 후세의 사람들은 소동파의 정론산문을 극도로 찬양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청인 시윤장(淸人施閏章)은 <소장공외서문(續蘇長公外紀序)>에서 “소동파의 시문이 금지를 받자 사대부들은 소동파의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을 크나큰 수치라고 여겼다”¹⁵⁶⁾고 적혀 있다. 이런 기록들에서 소동파의 글은 북송시기에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서야 후세의 거자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이다.

원우(元祐)원년(1086) 소동파와 등백온(鄧伯溫)은 공동으로 학사원 주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번 학사원 시험에는 총 세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사인조지충후, 법신 소지력정(師仁祖之忠厚, 法神考之勵精)”, “양한지정치(兩漢之政治)”, “용관지필수한 지재하결지환(冗官之弊水旱之災河決之患)”¹⁵⁷⁾이다. 소동파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감별하고 현재의 실질적 문제들을 연결하여 분석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양호한 문학풍격과 적극적인 작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비록 소동파가 이번 시험에서 마지막 결정적 선택권이 없었지만 과거진사들에게는 일종의 힌트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은 소동파가 만약 지공거였다면 책론시험의 제목과 내용은 관직(館職)¹⁵⁸⁾시험과 비슷했을 것이고 꾸밈없고 목적이 명확한 문장들은 꼭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시험에서 소동파가 사학사중의 한명인 료정일(廖正一)을 발탁(擢拔)하였다. 주임 시험관으로서 소동파가 인재를 선발 하는 데는 일정한 권한이 있었고 시험관의 문학풍격과 주장은 사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번 시험에서 필중유(畢仲游), 장순민(張舜民), 장뢰(張耒), 조보지(晁補之), 이소기

154) 曾枣庄.苏轼研究史[M].南京:江苏教育出版社, 2001年,第34页.

155) 转引自曾枣庄主编.苏文汇评[M].成都:四川文艺出版社, 2000年,第560页.

156) 曾枣庄.苏轼研究史[M].南京:江苏教育出版社, 2001年,第34页.

157) 무능한 관료와 수재 및 한계에 관한 우려.

158) 중국 당조와 송조시기 책을 편집하는 관직을 말한다.

(李昭玘) 등이 선택받아 관직을 가지게 되었으며¹⁵⁹⁾ 소씨 문인들은 점차적으로 조정에서 세력을 키우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대의 문화풍격을 개변시켰다.

소동파는 의식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북송중후기의 시험장문풍을 인도하였다. 소동파의 성공한 과거경력과 당시 문단맹주에 대한 숭배와 찬성은 사자로 하여금 소동파의 시문을 다뤄서 전송하게 하였다. 과장에서 득의양양한 소동파는 자각적으로 북송시문개혁의 기발을 들어 제자들을 교육하였고 대량의 범문으로 자신의 문학주장을 실천하고 부지런히 많은 문장을 작성하고 빈말이 적고 실용적가치가 있는 문풍을 갖춘 소문문인(蘇門文人)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원우(元祐)년의 정치적위의 상승으로 하여 소동파는 선후로 주감고(主試館閣)、지공거(知貢舉) 등 관직으로 국가문교대전에서 사업하여 천하의 사자들을 평가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권력을 가졌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동파는 또한 직무를 충분히 이용하여 사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천하의 사자들은 그에 대한 경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동파의 인격적 매력과 문장을 따라 배우려 하였다. 그는 심후한 학식과 다재다능함을 겸비하였고 천하와 만민을 배려하는 인격적 매력을 가진 면에서 천하무쌍의 문인 이였고 북송중후기의 문풍을 이끌었고 과거의 변화와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159) (宋) 李焘撰, 续资治通鉴长编[M]. 卷三百九十三, 哲宗元祐元年, 北京: 中华书局, 1995 年, 第 9552 页.

V. 결론 및 전망

1. 연구결론

소동파의 일생은 북송과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사출신인 큰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과거에 실패한 아버지의 가르침 하에 시험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과거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어 출중한 성적으로 진사급제를 하였다. 북송과거제도는 소동파가 받은 교육을 인도 하였고 시험장에서의 문화풍격에 영향을 주었다. 소동파는 절대 심오하고 이상한 시문에 과분한 흥취를 갖지 않았고 문장 속에 감정과 예의를 겸비하였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여 후세들의 사랑을 받았다. 북송과거제도는 소동파의 과거급제와 벼슬길을 더욱 순탄하게 하였고 명성을 천하에 알려지게 하였다. 가우6년의 제과(制科)에서 오육과 함께 송대 역사상 최고점의 삼등으로 천하제일의 문인임을 증명하였다. 소동파는 입사 후 지방과 전국적인 과거시험감고에 참여하면서 시험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전념하였다. 특히, 과거시험의 표준과 법규, 시험의 조직과 관리 등 방면에 독특한 견해와 진보적인 방안을 제기하면서 개혁의 실현과 나라의 인재선발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구양수의 뒤를 이은 문단맹주인 소동파는 북송중후기의 과거시험과 문화풍격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소동파와 북송과거시험은 상호적으로 영향 주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소동파는 신구 당파의 경쟁에서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 왔다. 신당에서는 소동파의 재능에 대한 질투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당은 파격적인 개혁사상과 독특한 개성 때문에 그를 배척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곤경과 좌절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요구를 낮추지 않았으며 과거시험개혁에서 자신의 주장을 견지 했고 인재의 배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동파의 안목으로 현대 중국의 수능시험, 까우카우를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본다.

첫째, 여전히 중앙집권 국가인 중국에서 까우카우는 과거시험과 다르게 통치계급의 집권을 가강하기 위한 인재 선발 수단이 아니다. 현대의 까우카우 내용은 표준화된 윤리도덕과 사서오경 및 시부와는 전혀 상관없고 국가표준의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수단이 아니며 중앙집권을 위한 인재를 다른 방식으로 배양되고 있다.

둘째, 까우카우는 수험생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국가에서 주최한 공평한 사회경쟁을 목적으로 한 테스트다. 현대사회의 취직 및 구인 표준은 대학졸업으로 되어 있어 한 사람의 우열을 판단하는 표준은 진실한 재능과 학술 및 됴됨이보다 학벌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세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든 공민을 대학생으로 배양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로 되어 있다.

셋째, 까우카우는 짚은 지역적 색채를 띠고 있다. 북경을 포함한 화북지역과 천진 지역, 상해를 포함한 중국 강남지역에서 중앙지도자와 관료들이 나타난다. 까우카우의 시험내용은 지방마다 다르고 대학에서 각 지방의 수험생에 대한 입학표준과 점수표준은 다르게 설정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경과 상해의 수험생들은 북경대학과 복단대학에 입학하려면 450점 좌우의 성적으로 시작되지만 길림성 등 변경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험생들은 650점 이상의 표준으로 지망할 수 있다.

넷째, 과거시험에서의 출납법과는 다르게 까우카우에서 낙방한 자는 부동한 시대의 교육법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졌다. 까우카우는 취득한 시험점수에 근거하여 부동한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과거시험과 달리 수험생들한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회를 갖게 하고 고대와 같은 부패현상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문화발전과 변화가 너무도 빨라서 새로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전혀 다른 시험내용과 과거의 친구들보다 뒤늦게 사회로 진출하기에 변수와 운명은 완전히 자기 손에 잡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현재의 까우카우로 소동파와 같은 절세(絶世)의 문호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당파싸움의 시달림과 사회와 정치의 흔들림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 때문에 까우카우와 과거시험을 놓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엔 타당하지 못하고 현대의 수험생들과 모든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을 소동파와 비교하는 것도 너무 잔혹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2. 연구의 부족점 및 전망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변하고 새로워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교육개혁안, 법규, 구호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도 습근평 총서기를 위수(為首)로 한 중국정부의 새로운 교육개혁안에 대응하여 ‘이중언어’수업, ‘소반화’교실, ‘결손가정자녀’교육, ‘고효과수업’등의 교육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결손가정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효과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로 민족교육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으로서, 연변조선족으로서 언제까지나 고향의 사자들의 학교생활과 까우카우 및 미래의 진로에 대한 근심을 버리지 않고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간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 그 과정에 이론지식과 연구능력의 한계로 인한 단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와 서적은 수량이 많고 종류가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시간과 정력 등 면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자료수집이 전면적이지 못하다. 이는 작자가 소동파와 북송과거제도의 관계를 더 전면적으로 장악하는데 하나의 제한요소로 된다.

2. 북송과거제도가 소동파에게 준 영향을 본 논문에서 귀납한 내용과 방법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금후의 학습에서 진일보의 수정과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3. 소동파와 현대의 학생들과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북송과거제도와 현대의 까우카우, 각종 시험들 및 인재선발을 위한 테스트들에 관한 비교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4. 소동파가 유배시기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안목으로 보는 북송과거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 시기의 작품에 담겨진 소동파의 달라진 정서와 인생철학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罗濬等撰(1993). 宝庆四明志. 台湾:成文出版社.
- 王安石撰(1959). 临川先生文集. 北京:中华书局.
- 陆游撰·李剑雄·刘德权点校(1979). 老学庵笔记. 北京:中华书局.
- 邵博撰·李剑雄·刘德权点校(1983). 邵氏闻见后录. 北京:中华书局.
- 叶梦得撰·侯忠义点校(1984). 石林燕语. 北京:中华书局.
- 司马光著·王根林点校(1986). 司马光奏议. 太原:山西人民出版社.
- 曾敏行(1986). 独醒杂志.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晁说之撰·景迂生集(1987), 四库全书 1118册.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苏辙著·曾枣庄·马德富点校(1987). 栞城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张耒撰·李逸安等点校(1990). 张耒集. 北京:中华书局.
- 脱脱等撰(1990). 宋史. 北京:中华书局.
- 苏洵著·曾枣庄·金成礼点校(1993). 嘉祐集笺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岳珂撰(1995). 愧郾录. 南京:江苏广陵古籍刻印出版社.
- 李焘撰(1995). 续资治通鉴长编. 北京:中华书局.
- 苏过著·舒大刚等校注(1996). 斜川集校注. 成都:巴蜀书社.
- 王安石著·宁波·刘丽华·张中良校点(1996). 王安石全集. 长春:吉林人民出版社.
- 徐松辑(1997). 宋会要辑稿. 北京:中华书局.
- 苏轼著·傅成·穆传标点(2000). 苏轼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秦观著·徐培均笺注(2000). 淮海集笺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苏轼撰·刘文忠评注(2000). 东坡志林. 北京:学苑出版社.
- 欧阳修著·李逸安点校(2001). 欧阳修全集. 北京:中华书局.
- 冯应榴辑注·黄任轲等校点(2001). 苏轼诗集合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周行己撰·周梦崑笺校(2002). 周行己集. 上海: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 朱弁撰·孔凡礼点校(2002). 曲洧旧闻. 北京:中华书局.
- 苏轼撰·王松龄点校(2002). 东坡志林. 北京:中华书局.
- 孔文仲等著·孙永选校点(2002). 清江三孔集. 济南:齐鲁书社.

马端临撰(2005). 四库家藏文献通考. 济南:山东画报出版社.

王应麟著·翁元圻注·栾保群等校点(2008). 困学纪闻. 上海:上海古籍出版社.

叶寘撰·孔凡礼点校(2010). 爱日斋从抄. 北京:中华书局.

苏轼著·李之亮笺注(2011). 苏轼文集编年笺注. 成都:巴蜀书社.

黄庭坚著·郑永晓整理(2011). 黄庭坚全集. 南昌:江西人民出版社.

邓广铭著(1975). 王安石—中国十一世纪的改革家. 北京:人民出版社.

曾枣庄(1981). 苏轼评传. 成都:四川人民出版社.

郭绍虞编选·富寿荪校点(1983). 清诗话续编. 上海:上海古籍出版社.

曾枣庄(1986). 三苏文艺思想. 成都:四川文艺出版社.

毛礼锐·沈灌群主编(1987). 中国教育通史. 济南:山东教育出版社.

曾枣庄·刘琳主编(1991). 全宋文. 成都:巴蜀书社.

丁守和等主编(1994). 中国历代奏议大典. 哈尔滨:哈尔滨出版社.

四川大学中文系唐宋文学研究室编(1994). 苏轼资料汇编. 北京:中华书局.

曾巩散文全集(1996). 北京:今日中国出版社.

孔凡礼撰(1998). 苏轼年谱. 北京:中华书局.

王昊. 苏洵传(1998). 长春:吉林文史出版社.

曾枣庄主编(2000). 苏文汇评. 成都:四川文艺出版社.

王水照·崔铭著(2000). 苏轼传:智者在苦难中的超越. 天津:天津人民出版社.

吴雪涛辑录(2001). 苏轼交游传. 石家庄:河北教育出版社.

曾枣庄(2001). 苏轼研究史. 南京:江苏教育出版社.

曾枣庄·舒大刚主编(2001). 三苏全书. 北京:语文出版社.

傅璇琮主编·祖慧·龚延明撰(2005). 宋登科记考. 南京:江苏教育出版社.

周义敢·周雷编(2006). 秦观资料汇编. 北京:中华书局.

曾枣庄著(2008). 宋文通论. 上海:上海人民出版社.

林岩(2006). 北宋科举考试与文学. 上海:上海古籍出版社.

何忠礼著(2006). 科举与宋代社会. 北京:商务印书馆.

祝尚书著(2006). 宋代科举与文学考论. 河南:大象出版社.

郑若玲著(2007). 科举, 高考与社会之关系研究. 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

祝尚书著(2008). 宋代科举与文学. 北京:中华书局.

曾枣庄著(2010). 文星璀璨:北宋嘉祐二年贡举考论. 上海:复旦大学出版社.

傅璇琮·张剑主编(2011).宋才子传笺证. 沈阳:辽海出版社.

林语堂著·张振玉译(2012). 苏东坡传. 长沙:湖南文艺出版社.

孙书平(2003). 宋代试论及其文学之影响. 扬州大学硕士学位论文.

张大联(2004). 论苏轼的散文理论及散文创作.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杨昌俊(2006). 论苏轼文学观. 新疆大学硕士学位论文.

梁俊娜(2007). 苏洵的散文理论,创作及其对苏轼的影响.山西大学硕士学位论文.

朱敬义(2008). 北宋科举制度改革六次论争及相关问题之考察.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何婵娟(2008). 以嘉祐为中心的散文研究.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姜谢华(2008). 苏轼应用文研究. 长春理工大学硕士学位论文.

叶晋晋(2010). 北宋党争对科举改革的影响研究. 河南大学硕士学位论文.

韩鸿伟(2011). 苏轼教育思想研究. 河南大学硕士学位论文.

王连旗(2011). 北宋嘉祐二年进士研究. 河南大学博士学位论文.

张昶(2012). 苏轼与欧阳修关系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刘森(2012). 苏轼与王安石政治关系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唐鹏(2013). 苏轼政论散文研究. 扬州大学硕士学位论文.